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1. 10월

Vol. 20

ISSN 2713-9387

모음

팬데믹이 가져다 준 기회, 온라인 한국문화 실험기



— 1971~2021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Kocis** 해외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FICE

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4 1. 문화예술 :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호주, 스웨덴,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태국, 나이지리아
- 12 2. 문화산업 : 프랑스,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
- 17 3. 체육 : 일본, 미국, 독일, 카자흐스탄,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 20 4. 관광 :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호주,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브라질, 오스트리아, 인도, UAE

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27 1. 필리핀 한국 문화원, 온라인 한국 문화 실험기 : 팬데믹이 가져다준 기회
- 33 2. 비디오 게임 산업의 성장과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
- 37 3. 기후 변화와 문화유산의 상호연관성

III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10월 활동계획

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1. 문화예술 :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호주, 스웨덴,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태국, 나이지리아
2. 문화산업 : 프랑스,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
3. 체육 : 일본, 미국, 독일, 카자흐스탄,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4. 관광 :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호주,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브라질, 오스트리아, 인도, UAE

1. 문화예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모델 필요

벨기에

9월부터 새로운 문화 기본 지침 시행

벨기에 플랜더스 지역은(네덜란드어권 지역) 적극적인 예방 접종 캠페인과 안정적인 코로나19 감염 수치 상황으로 지난 9월부터 축제,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문화행사를 재개했다.

우선 200명 미만의 관중을 동원하는 실내행사와 400명 미만의 외부행사는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실내외 행사는 '코로나안전티켓(Covid Safe Ticket)'을 사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행사위험모델(CIRM/CERM) 관련 의무가 종료된다. 10월 1일 이후, 플랜더스 지역에서는 실내행사의 수용인원 500명, 실외행사 750명으로 관람객 인원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코로나안전티켓의 항목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백신접종확인증 : 접종 후 2주 이상
2. 6개월 이내의 백신접종확인증 :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 시 해당
3. PCR 음성결과 : 검사 후 2일 동안만 유효
4. 신속항원검사의 음성결과 : 검사일과 다음날만 유효

(출처 : 플랜더스 문화청소년미디어부, 2021.08.28.)

프랑스어권 지역의 문화예술 보급을 위한 새로운 지원조치 발표

벨기에 프랑스어권 정부는 지역의 문화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조치로 지역 내 카페나 주택 등을 활용하는 '지역 유통 장소(Local Distribution Places)'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특히 'Art & Life' 혹은 'School Shows'와 같은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벨기에 프랑스어권 정부는 '지역 유통 장소(Local Distribution Places)' 프로그램에 연간 최대 5,000유로(약 689만 원)의 보조금을 할당하고, 카페 콘서트, 카페 극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보급에 적합한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수혜를 받는 곳은

최소 1년 혹은 시즌의 문화보급 전문성, 예술 작품 보급에 적합한 장소와 장비, 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연간 예산을 보장받게 된다.

(출처 : 벨기에 프랑스어권 정부, 2021.08.24.)

정신건강을 위한 박물관 방문 처방 시스템 제안

브뤼셀의 문화·관광부문 시의원인 델핀 호우바(Delphine Houba)는 의사의 처방으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캐나다 퀘벡 주의 미술관과 의사 조직 간 협약 후에 도입한 시스템에서 착안한 것으로, 몬트리올의 의사는 심리적 진정을 위해 예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게 연간 50개의 '박물관 방문'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호우바 시의원의 제안은, 지난 여름 벨기에 정부에서 1건당 11유로(약 1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다수의 심리학자들이 불참하면서 정책의 매력이 저하된 직후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박물관 처방전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와 박물관이 브뤼셀 정부의 보상기금 없이 수익을 포기할 수 있을 지가 쟁점이다. 호우바 시의원은 시립박물관을 포함 5개 박물관과 브루그만(Brugmann)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과 함께 향후 3개월간 해당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출처 : 브뤼셀 타임즈, 2021.09.02.)

이탈리아

문화·스포츠 시설의 방역지침 조정

이탈리아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문화예술계 방역지침을 조정했다. 공연 시설과 스포츠 행사시설은 수용인원에 따라 사용 면적을 제한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린패스(Green Pass,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관람을 허용하는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시설 및 스포츠 행사장

- 실외 공연장 : 관람객 5,000명 이상일 경우 행사장의 50% 사용,
관람객 5,000명 이하일 경우 행사장 100% 사용
- 실내 공연장 : 관람객이 2,500명 이상일 경우 행사장의 35% 사용,
관람객 2,500명 이하일 경우 행사장 전체 사용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관람객 수 상관없이 경기장 50% 사용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관람객 수 상관없이 경기장 35% 사용

• 박물관·미술관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입장 가능
- 박물관 재개장 이후 지난 5월~7월 사이에 전국 박물관 약 400만 명
관람객 집계, 2020년 대비 155% 증가

(출처 : 이탈리아 문화부)

문화청, 전년 대비 22% 증가한 2022년 예산 요구

일본 문화청은 2022년도 문화 부문의 예산을 전년 대비 22% 증가한 1,311억 엔(약 1조 3,932억 원) 계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의 계속·발전 등 지원’ 사업은 이례적으로 재정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술교육 체험문화예술 담당자 양성 : 146억 엔(약 1,552억 원, 전년대비 60% 증가), 이 중 신규사업인 ‘문화예술 자녀육성 추진사업’에는 79억 엔(약 840억 원)을 편성해 도서산간 지역 초등학교·중학교·특별지원학교에 실연예술공연 2,500회 실시, 예술가 3,150명 파견
- 어린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20억 엔(약 213억 원) 예산 편성,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으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극장과 음악당 등 공연 프로그램 지원
- 일본박람회 혁신형 프로젝트 : 9억 4,000만 엔(약 100억 178만 원) 예산 편성, 2020 도쿄올림픽 개최 계기 일본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본 사업을 유지해 약 40건 행사 실시할 계획

(출처 : 美術手帳, 2021.08.31.)

공연업계 관련 코로나19 대책 지원예산 편성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내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 관련 2021년도 예산 예비비 중에서 1조 4,226억 엔(약 15조 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와 치료 약 확보에 1조 1,029억 엔(약 11조 290억 원)을 지출하고, 고용 유지와 빈곤계층 지원 외에도 음악·공연업계에도 배정된 예비비 중 3,197억 엔(약 3조 4,00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 요미우리신문, 2021.08.27.)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아이치현 야외 음악축제의 보조금 교부 취소

지난 8월,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개최된 협합 야외 음악 축제가 코로나19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긴급사태선언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진행해 논란이 되었다. 아이치현 지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으로 축제 참가자 중 최소 22명의 감염이 확인되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객들의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서로 밀착된 상태에서 축제 진행과 주류제공을 확인한 후 해당 축제 주최자에게 당초 예정되었던 3,000만 엔(약 3억 1,918억 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취소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2일 기준으로

21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12개 현(縣)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각종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의 행사 개최 시,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규정한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출처 : Affordable Art Fair 공식 누리집)

호주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

호주 연방정부는 2억 호주 달러(약 1,720억 원)의 RISE 펀드¹의 5차 보조금에 따라 호주 전역의 63개 주요 기관에 2,000만 호주 달러(약 172억 원)를 지원했다. 폴 플레처(Paul Fletcher) 통신도시기반도시예술부 장관은 최근 지원금을 통해 56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현재 16세 이상 호주인의 약 60%가 최소 1차 접종 완료 상태로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재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퀸즐랜드 주정부는 소규모 문화예술 기관에 기금 지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주정부의 '코로나19 회복 계획'과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성장 10년 로드맵'의 일환으로 4년에 걸쳐 총 3,300만 호주 달러(약 285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본 기금은 지원 이력이 있는 32개 기관과 신규 14개 기관을 포함해 총 46개 기관에 지원될 예정이다.

(출처 : 벨기에 프랑스어권 문화부, 2021.8.3.)

1 RISE(Restart Investment to Sustain and Expand) 펀드란 예술 기관과 기관의 축제, 공연 등 경쟁력 있는 다양한 행사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스웨덴

문화행사의 코로나19 방역지침 해제

스웨덴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콘서트, 극장, 스포츠 행사 등 코로나19 방역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식당은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재택근무도 해제될 예정이다. 스웨덴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출처 : Sveriges, 2021.09.07.)

'디파트먼트(Department)'음악 축제에 백신 여권 첫 도입

스웨덴은 지난 9월에 열린 음악축제 '디파트먼트(Department)'²에서 관람객 전원에게 백신 여권을 요청했다. 스웨덴에서 백신 여권을 요구하는 축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축제참가자들은 예방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했다. 단,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해당 축제 현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출처 : svt, 2021.09.03.)

2 일렉트로닉 댄스뮤직 페스티벌 행사로 2021.09.03~09.04. 양일간 진행

스웨덴

문화유산과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개발에 1,000만 크로나(약 14억 원) 재정지원

스웨덴 국립유산위원회는 문화유산과 문화환경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1,000만 크로나(약 14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와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편성될 예정이다.

국립유산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유산과 기후에 대한 연구개발은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그에 따른 문화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SVERIGES MUSEER, 2021.08.16.)

카자흐스탄 2022년부터 약 3년간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급여 매년 20% 인상 예정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의회합동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문화예술 부문의 정책기조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기관, 기록보관소, 사서 등 문화계 종사자들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를 매년 20% 인상 받는다. 이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조각가, 음악가, 연극인 등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이행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어 진흥정책을 장려³하고, 카자흐-러시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유엔(UN)의 공식 언어이자 러시아어 사용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출처 : inform buro, 2021.09.01.)

3 카자흐스탄 집권 여당과 정부는 2020년부터 민족 간의 공용어를 기존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 추가.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공용어인 러시아어 사용을 줄이고 공문작성, 간판표기, 방송콘텐츠 등 사회 전 분야에 카자흐어 사용 적극적으로 권장

러시아

문화발전을 위해 2024년까지 110억 루블(약 1,799억 원) 지원 확정

러시아 문화부는 동방경제포럼의 극동연방지구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주제 회의에서 극동연방지구 문화발전을 위해 110억 루블(약 1,799억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에는 지역 내 문화의 집, 어린이집 기능이 있는 도서관, 영화관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올라 류비모바(Olga Lyubimova) 러시아 문화부 장관은 극동연방지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문화교육과 박물관 시설 확충을 통한 미래 교육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 문화부 장관은 “극동연방대학과 트레찌야콘스카야 갤러리의 공동 프로젝트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 문화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내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러시아 문화부, 2021.09.02.)

인도네시아

향신료 루트,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1월에 향신료 루트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했고,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향신료 생산국이자 과거에는 본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족이 모여 향신료 무역을 했던 역사가 있는 국가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 향신료 루트 문화제는 다수가 소실되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Liputan6, 2021.08.22.)

캐나다

2021년 주요정당의 문화정책 공약 비교

캐나다 연방정부의 5개 주요정당은 지난 9월 3일 공보 채널(Cable Public Affairs Channel, CPAC)⁴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캐나다예술연맹은 주요정당의 최고 대표자들이 언급한 문화정책 공약발표 내용을 비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로저스 Shaw, 퀘벡주의 비디오트론 회사등 캐나다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콘소시움으로 만든 공보 관련 케이블 TV

• 자유당

- 해외의 거대 규모의 웹 관련 기업들로부터 캐나다 콘텐츠와 음악의 제작, 홍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
- 방송관련 기관의 운영 현대화, 스토리텔링과 비디오 게임 등의 기반 환경 지원
- 장편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해 캐나다영화공사(Telefilm Canada)의 운영기금 5,000만 캐나다 달러(약 500억 원) 상당의 상향 조정
- TV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캐나다미디어기금 두 배 증액
- 공용어인 프랑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3%에서 40%로 끌어올리기 위해 캐나다영화공사와 캐나다미디어기금 지원 확대
- 캐나다 공영CBC방송의 광고수익 의존도를 낮추고자 4년간 4억 캐나다 달러(약 3,733억 원) 상당 재정지원

• 보수당

- 디지털 스트리밍 확대
- 캐나다 콘텐츠 제작 확대 지원
- 공용어인 프랑스어 콘텐츠 지원 확대
- 캐나다방송심의공사(Canadian Radi-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와 캐나다미디어기금(Canada Media Fund) 수수료를 포함하여 관련 조항 개정

- 신민주당
 - 해외 스트리밍 업계로부터 캐나다 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 마련
 - 캐나다 공영CBC방송을 위한 지원금 확대
 - 콘텐츠 다양성 보호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
 - 미디어의 디지털화 지원 확대
 - 원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캐나다국립아트센터(National Art Center)에 원주민극장 지원
 -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세제 개선
- 녹색당
 - 캐나다 방송법 Bill C-10에 의거 캐나다방송심의공사(CRTC)를 통해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 강력규제 실행
 - CRTC가 독립방송과 비영리방송들을 위한 광통신망 확대 지원
 - 콘텐츠 관련 법규와 명제들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CRTC 지원
 - 공용어인 프랑스어와 원주민 언어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공영CBC방송⁵ 지원 확대
 - 캐나다 지역방송 포함 미디어 소유권 다양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 소집
- 퀘벡당
 - 캐나다방송심의위원회를 대체할 퀘벡 방송기구 신설
 - 프랑스로 제작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확대해 퀘벡의 고유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송법안 상정
 - 공평한 소득 제도 확립하고 대기업체와 대응하기 위해 퀘벡주와 캐나다 제작사들과 공동 대응 전략 방안 마련
 - 디지털 거대자본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퀘벡주의 문화예술과 미디어에 환원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음악계의 활성화를 위해 2024-2025년까지 캐나다음악기금에 5,000만 캐나다 달러(약 467억 원)까지 증액

5 캐나다의 공영 방송 캐나다 방송협회(CBC)의 영어 종합 텔레비전 방송 네트워크로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CBC가 보유한 캐나다 대부분의 지상파 텔레비전을 통하여 시청

(출처 : 캐나다예술연맹 공식 누리집, 2021.09.03.)

아르헨티나 문화패스로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 참여

문화패스는 16~19세 청소년과 공립학교 교사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가 기획한 정책이다. 문화패스 소지자는 극장, 영화, 콘서트 등의 입장권을 할인받을 수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문화부는 지난 8월 19일 부터 '소리를 높여봐(Pasa la voz)'라는 온라인프로그램을

개최해 문화패스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자유형식 인터뷰(free style), 통합적성 교육(ESI), 기후변화, 케이팝(K-Pop), 스포츠 등의 주제로 열리는 강좌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출처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2021.09.15.)

문화패스 ‘소리를 높여봐’ 행사 포스터와 문화패스 카드



(출처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태국

주중태국문화원 설립 발표

태국 문화부는 최초로 태국문화원을 중국에 건립해 무용, 영화,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태중국문화원은 2011년 아세안(ASEAN)국가 중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약 90만 명의 태국 학생들이 중국문화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태국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있는 아시아 언어는 1위 중국어, 2위 한국어(약 5만여 명)로 나타났다.

(출처 : BangkokPost, 2021.09.07.)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미국 간의 문화재 불법 거래중단 협약

나이지리아 정부는 미국과 공동으로 문화재와 공예품의 불법 밀수를 중단하는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모하메드(Mohammed) 정보문화부장관은 나이지리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친 양해 각서(MOU)의 최종 초안에 동의하며, 조만간 나이지리아에서 서명식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본 협정을 통해 자국의 문화재와 공예품을 미국으로 불법 밀수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국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리 다음으로 미국과 협약을 맺는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출처 : BangkokPost, 2021.09.07.)

2.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분야 친환경 정책 반영

프랑스

프랑스영화·애니메이션이미지센터(CNC)의 친환경 정책 발표

프랑스영화·애니메이션이미지센터(CNC)는 기후 변화 대처와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고 영화·영상산업에서의 환경 오염 최소화를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CNC는 2020년 9월에 환경 전문가들에게 영화 부문의 친환경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지난 6개월 동안 친환경 관련 기술, 교통, 폐기물 관리, 디지털화 등 4가지 주제를 구체화했다. 친환경 정책은 2024년까지 총 3단계로 시행되며, 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CNC의 친환경 정책 3단계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22년) :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 영화관과 제작 스튜디오의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해 환경·에너지 전환 관측소 설립
 - 방송사와 배급사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시 배출되는 탄소 영향 측정 도입
 - 영화,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 관련 교육기관 내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환경보호 모범 사례와 지침서 제공
 - 영화제 등 행사에 통해 친환경 정책 홍보
- 2단계('23년) : 적용 가능한 표준과 범위 설정
 - CNC가 제작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탄소 배출량 측정 의무화
 - 시설물의 에너지 소비 개선을 위해 영화관, 제작 스튜디오 등의 건물 개·보수 지원
 - 폐기물 관리, 교통과 디지털 분야의 친환경 달성 목표 수립
- 3단계('24년) :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 영화 제작 시 탄소 배출량을 감안한 지원 예산 책정

- 영화 제작 시 특정의무를 준수할 경우에만 CNC의 제작지원금 수혜 조치 마련

(출처 : CNC 공식 누리집, 2021.06.13.)

아르헨티나 전 연령을 위한 게임개발 지원정책

게임개발 지원정책은 아르헨티나 미디어공공통신부의 정책으로 생활문화와 여가활동의 콘텐츠 생성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교육 개발과 상호협력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지원정책은 공모사업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각, 촉각, 청각 등 인지적인 측면을 촉진하기 위한 게임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선발된 참가자는 5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603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출처 : 아르헨티나 정부, 2021.09.17.)

중국

오는 10월 '2021 형텐영화제' 개최를 통해 영상문화산업 발전 구상

2021년 형텐영화제는 오는 10월 20일-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는 '형텐 영화·드라마 문화산업박람회', '중국(형텐 지역) 영화·드라마 산업 발전대회', '제8회 문영장(文榮獎) 시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형텐 영화·드라마 문화산업은 중국 정부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원으로 크게 발전했다. 형텐 영화·드라마 문화산업지구에서는 2021년 상반기 영업수익 104억 위안(약 1조 9,17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0.1% 증가했다. 또한 영화·드라마산업 업계의 영업수익은 32억 위안(약 5,901억 원)으로 47.4% 증가, 형텐 지역을 방문한 촬영팀은 222개 팀으로 2020년 대비 96.5% 증가했다. '2021 중국영화 인재 교류 대회'는 영상분야의 기업, 전문가, 교육기관이 연계해 '인재육성발전 포럼', '2021 영상 인재 발전 보고서' 발표, '영화·드라마 사업 관련 인재들과의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gmw.cn, 2021.08.21.)

1 매년 개최되는 중국의 최대 관심사 행사 중 하나로 영화계의 새로운 역량 육성이 목표

금융·경제 뉴스 오보, 규제 강력 단속

중국 인터넷정보관공실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금융·경제 뉴스의 왜곡 보도, 소문, 왜곡된 해석 등을 지적하며, 오는 10월 26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와 불법 취재 보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금융·경제 관련 1인 미디어, 중국 메신저(위챗)공식계정, 주요 금융 정보 플랫폼, 주요 산업 온라인 플랫폼 중 금융 부문 등 4가지

유형이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8가지 사안의 위반 문제를 퇴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내 금융정책, 거시 경제 정보 왜곡과 해석 오류
2. 해외 언론 중 경제 분야의 왜곡된 보도 정보 퍼 나르기
3. 악의적인 소문 등 허위사실 유포
4. 경제 뉴스의 정보 전달 시 일방적인 왜곡 인용 보도
5. 주가조작 등 정상적인 금융 시장 질서 방해 행위
6. 정보조작 등을 통해 해당 이해관계자들을 위협, 협박하는 행위
7. 사회 문제로 형성된 정서를 악용한 금융상품 판매
8. 금융당국의 직원, 전문가, 학자 등의 명의를 사칭한 금융 칼럼 게시와 계정 도용

(출처 :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 2021.08.27.)

연예인 인기 순위와 팬덤문화(열성 팬 문화) 규제 강화 발표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8월 「팬덤문화규제강화를위한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내용은 연예인 인기 순위 금지, 연예인 기획사 엄격 관리, 팬 그룹 계정 표준화 등 10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예인 인기 순위 폐지 : 연예인 개인과 단체 관련 제품에 대한 인기 순위 금지, 음악과 미디어 콘텐츠 등의 인기 순위 유지 (단, 연예인 이름 표기금지)
2. 인기순위 규칙 조정 : 음악·영상작품 순위에 개인 댓글, 리뷰에 대한 지표점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전문가 평가의 비중 증가
3. 연예인 기획사 관리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관련 연예인 기획사에 대한 관리 강화, 기획사의 팬덤에 대한 행위 유도 책임 강화
4. 팬덤 계정 표준화 : 팬덤과 후원회 계정은 해당 연예인 기획사에서 승인을 통해 관리
5. 상호비방 금지 : 온라인 플랫폼 관리 책임 하에 팬덤 간의 상호비방 행위에 대한 계정 삭제 조치
6. 규정위반 단체채팅과 팬카페 계정 삭제 : 투표, 응원, 모금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 단체 제재
7. 팬덤 비용지불 유도 금지 : 연예인 음반과 작품 등 콘텐츠 중복 구매, 팬덤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비교 순위 금지
8. 예능 프로그램 관리 강화 :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에서 출연자를 지지하는) 투표권 구매 방식 금지, 제품 구매 또는 지불 수단으로 투표참여 방식 금지
9. 미성년자 참여 통제 : 미성년자의 지불액을 통한 투표 참여 금지
10. 음원 모금 행위 규범화 :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응원모금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

(출처 :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 2021.08.27.)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전문직무평가시범법」 시행

베이징시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지식재산권국은 공동으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전문직무평가시범법」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전문직무군들을 추가했다. 이는 국유기업과 기관, 비공유제경제조직, 사회단체에서 지적재산(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서비스 업무와 운영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들을 평가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지식재산권 업무 종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하이에서는 2019년에 「경제전문인원 직무제도 개혁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직무를 경제 전문 자격시험에 공식 추가했다. 지식재산권 업무의 종사자들은 중국 당국의 표준화된 직무관리를 받게 되었다.

베이징시는 지식재산권 전문직무에 대한 명칭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 이번 심의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직무는 기존 경제직무 직함을 적용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유형, 인증기준, 평가 기준 등에 최적화된 조치였다. 초·중급 지식재산권 직무자는 인사부의 표준화된 지침으로 관리를 받고 자격시험은 인사평가관공실에서 담당한다. 고급 지식재산권 직무자는 베이징시 인사국의 지식재산권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관리받는다. 중급 전문직을 취득한 실무자는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산업표준, 개발계획 등에 참여하거나 지식재산 전문 학술저작물, 교재와 설명서 집필 등에 다양한 저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출처 : new, 2021.08.26.)

'디자인 라이선싱 앤 비즈니스' 지원

홍콩 정부가 후원하는 '디자인 라이선싱 앤 비즈니스(Design Licensing and Business, DLAB)'는 홍콩의 젊은 캐릭터 디자이너와 지식재산권(IP) 보유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제4회를 맞이하는 DLAB는 '2022 홍콩국제라이선싱쇼' 홍콩관에 참여할 작가 45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 참여자는 홍콩라이선싱쇼 부스 임차료 전액 지원, 비즈니스 매칭, 디자인 관련 업계 전문가 자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본 사업은 홍콩 외에도 웨강야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지역에서 개최되는 라이선싱 전시회에 홍콩 작가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잠재적인 시장 확장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출처 : DLAB 공식 누리집)

인도네시아 문화전문 미디어 '인도네시아 채널' 개설

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는 최초로 문화전문 미디어 채널 '인도네시아 채널(Kanal Indonesia)'을 개설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채널은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등과 같은 누리소통망에서 방영되고 있다. 나디안 안와르(Nadiem Anwar Makarim) 문화교육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채널’이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인도네시아를 만들고 문화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한국의 아리랑TV(Arirang TV)와 영국의 BBC 컬처(BBC Culture)의 사례처럼 인니 문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tempo, 2021.09.10.)

3. 체육

차별없는 체육 환경 기반 스포츠 산업 진흥 추진

일본

스포츠 산업 성장을 위해 국제 스포츠 비즈니스 인재모집 추진

일본 스포츠청은 스포츠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비즈니스 국제회의파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해당 산업의 주요 목표는 스포츠 산업을 2025년까지 15조 엔(약 16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시켜 국가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첫 인재 파견지역은 영국 런던의 Leaders Week London('21.10.05~10.07.)¹과 호주 멜버른의 Sport NXT Summit('21.11.17.~11.19)²이다. 일본 정부는 영국과 호주에 약 5명을 파견해 현지의 정보 수집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ALF TIME 미디어, 2021.08.16.)

1 2008년에 창설되었으며 유럽 시니어 리더들이 참가하는 행사

2 2021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스포츠계의 다보스포럼을 목표로 NBA, IOC 위원회, FIFA 여자 월드컵 스포츠 투자 펀드 등 간부가 참가할 예정

미국

인종 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키 리조트 명칭 변경

LA에 있는 스쿼 벨리(Squaw Valley) 스키 리조트는 팰리세데스 타호(Palisades Tahoe)로 상호명칭을 변경해 인종 차별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스쿼 벨리라는 이름이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스쿼 벨리 스키 리조트의 상호 변경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색인종에 대한 식민주의와 억압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출처 : NBC Sports, 2021.09.13.)

독일

장애인 통합 스포츠 프로젝트에 500만 유로(약 70억 원) 지원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과 사회복지기구 악치온 멘쉬(Aktion Mensch)는 장애인 통합 스포츠 프로젝트에 500만 유로(약 70억 원)를 지원했다. 악치온 멘쉬는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과 함께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훈련지도자 또는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연방정부의 참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 스포츠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4%로 전체 인구 비율로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심지어 장애인 참여 비율조차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됐다.

이는 독일 현지 지역의 제도적인 지원과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때문이다.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측은 “스포츠는 사회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전문지식과 재정지원을 통해 장애인 통합 스포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2021.08.31.)

카자흐스탄 대국민 스포츠 기반시설 건설 사업 추진

카자흐스탄 정부는 합동회의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체육과 스포츠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대중 체육, 어린이 체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저조한 메달 성적에 대해서 별도 관계부처 회의 소집해 스포츠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Almaty, 2021.09.01.)

2020 도쿄패럴림픽 입장자의 국가유공 수여와 포상금 지급 현황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지난 9월 2020 도쿄패럴림픽 입상자와 지도감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 수여식을 개최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역대 금메달리스트는 1억 600만 텡게(약 4억 4,640만 원), 담당 훈련 감독은 8,500만 텡게(약 2억 3,715만 원)로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포상금이 수여되었다.

이어서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다음 파리패럴림픽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독려했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09.07.)

캐나다 단일 스포츠 경기 베팅 합법화로 경제·고용창출 효과 기대

캐나다에서 단일 스포츠 경기 베팅이 지난 8월 27일부터 합법화됐다. 이후 캐나다 시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미국의 슈퍼볼과 아이스하키 결승전 등 단일 경기의 베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온타리오복권도박공사(OLG)는 같은 날 동시에 단일 스포츠 경기의 온라인 베팅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캐나다인들이 미국 등의 암시장에서

불법으로 행해졌던 스포츠 베팅을 양지로 가져옴으로써 스포츠 베팅의 통계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단일 스포츠 경기 베팅은 약 4억 캐나다 달러(약 3,733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와 연간 산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 : CBC, 2021.08.21.)

아르헨티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미카엘라 스포츠' 추진

아르헨티나 관광체육부는 지난 9월 스포츠 내 양성평등을 위해 아르헨티나 여성부와 함께 하는 훈련사업인 '미카엘라 스포츠(Micaela deportes)' 출범³을 발표했다. 주요 목표는 스포츠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성 폭력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훈련 대상은 스포츠 단체, 연맹 당국, 운동선수, 지도감독관 등 스포츠 관계자이며, 본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9월 16일부터 4주간 매주 2시간씩 운영되었다.

(출처 :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2021.09.02.)

³ 미카엘라법(Micaela Law, No. 27,499)을 근거로 아르헨티나의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성 폭력에 대한 의무 교육 설정

브라질 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원금 확대

「체육진흥법 조례 441」 의거 운동선수의 월 지원금이 일일 교통비 12 헤알(약 2,600원)과 식비 25 헤알(약 5,400원) 포함 총 1,000 헤알(약 22만 원)에서 8,000 헤알(약 175만 원)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본 지원금의 사용 범위와 금액은 주거보조비, 진료비, 대회출전비 등으로 확대되었다.

(출처 : 브라질 정부, 2021.09.13.)

4. 관광

엄격한 방역지침 속에 관광 재개 준비

벨기에

브뤼헤의 Sint-Godelieve 수도원 대중에게 공개, 지역주민과 공동 관광개발

브뤼헤의 Sint-Godelieve 수도원은 400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개방됐다. 플랜더스 관광청(네덜란드어권 지역)은 ‘현재의 정원(The Garden of the Present)’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브뤼헤의 Sint-Godelieve 수도원을 한 달 동안 탐방하고 해당 유산 역사의 체험 학습, 향후 장소 활용 방안 제안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Sint-Godelieve 수도원은 지역 주민들을 포함 현지 기업가, 방문자 등이 공동 창작 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08.13.)

브뤼헤의 Sint-Godelieve 수도원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알로니 자전거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접근성 높은 자전거 관광 상품 개발

알로니 관광청(프랑스어 지역)은 ‘알로니 자전거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접근 용이한 자전거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 포함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레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도로 포장 상태, 화장실과 주차 공간 등의 주변 환경 시설개선 방안에도 초점을 맞췄다. 자전거 도로 1,440km에 달하는 RAVel(저속주행도로자율네트워크)가 조성되었으며, 현재 8곳의 경로에 추가로 5곳이 더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관광기구(WTO)의 '접근성 높은 포괄적 관광의 모범사례'에도 언급됐다.

(출처 : 알로니 관광청, 2021.09.07./L'avenir, 2021.09.07.)

알로니 자전거 관광 프로젝트



(출처 : 알로니 관광청)

이탈리아

산악관광에 4억 3,000만 유로(약 552억 원)지원

이탈리아 관광부는 케이블카와 리프트 운영업체를 위해 지원금 4억 3,000만 유로(약 5,928억 5,820만 원)를 이탈리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 중 일부는 스키 강사와 학교를 위해 4,000만 유로(약 552억 원)를 배정했다.

(출처 : 이탈리아 관광부)

일본

2022년 관광예산 전년 대비 3.3% 증가한 425억 엔(약 4,523억 원) 요구

일본 관광청은 2022년도 관광 부문의 예산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425억 3,500만 엔(약 4,527억 원)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요구액 중 177억 3,500만 엔(약 1,888억 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본격적인 관광부흥 실현을 목표로 관광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 지역관광 콘텐츠 지원
 - 자연, 음식, 역사, 문화, 예술, 지역 산업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판로개척 지원
 - 숙박시설 수를 기준으로 관광지를 재생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
- 관광산업 지원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에 전년 대비 7배 증액한 7억 엔(약 75억 원)

을 편성해 지역 내 관광·여행 소비의 부가가치 확산과 창출 활동 지원
- 현지 음식의 매력 향상 등 음식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인바운드 관광객 관리
- 인바운드 조기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목표 6,000만 명, 방일 외국인의 자국 관광 소비액 15조 엔 (약 160조 원) 목표
- 면세점 세제 개혁
- 면세 대상자를 외환법이 규정하는 비거주 단기체류자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확인 방법을 통해 여행자의 쇼핑 만족도 향상 목표

(출처 : 여행신문, 2021.09.06.)

호주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예정

모리슨(Morrison) 호주 연방정부 총리는 16세 이상 인구 8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시 해외여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로써 호주 연방정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 이유는 호주소재 연구소에서 호주 내 인구의 70~80%가 2차 백신 접종 달성 시 확진자 수와 무관하게 봉쇄령에서 벗어나도 안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출처 : The Guardian, 2021.08.13.)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 가을맛이 관광객 유치 노력

마드리드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지난 7월 마드리드 지역 관광객 수는 스페인 전역 비교 2배, 2020년 대비 208% 증가했다. 유네스코가 '프라도 거리(Paseo del Prado)'와 '레티노(Retiro) 공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언한 이후, 마드리드시는 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고부가가치 외래 관광객(프리미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마드리드 지방정부는 현지의 주요 음식, 공연 행사, 관광지 투어, 스포츠 등 각종 행사를 기획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드리드 미식(美食) 아카데미와 협력 : '마드리드 푸시온('19년 13,000명 참가)과 '가스트로축제(Gastro festival) 행사' 홍보
- 문화행사 홍보 : 가을에 열릴 뮤지컬, 연극 작품 대규모 캠페인,
- 다양한 스포츠 행사와 국제회의 개최 : 테니스, 골프, 농구 등의

러시아

러시아 연방국가 '문화'사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자국 관광 지원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1년 러시아 연방국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자국 관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러시아 85개 지역에 1만 4,000명 이상의 10~17세 예술학교 학생, 일반 학교와 사관학교 재학생들이다. 본 사업은 지난 7월에 시작해 11월까지 우주 역사, 러시아 제국의 역사, 러시아의 문학 등 14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Interfax, 2021.08.11.)

인도네시아

엄격한 방역지침 속에서 관광 재개 준비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준수 조건으로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산업이 자국내 1,400만 개의 일자리 기여 등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BBB지역(바탐, 발리, 빈탄)에 관광 재개를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Kompas, 2021.09.15.)

아르헨티나

관광사전 판매 프로그램 '여행경비 환급제도(previaje)' 11월부터 시행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자국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업계 부흥을 위해 '여행경비 환급제도(2021 PreViaje)'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항공비, 숙박비, 렌트카 비용 등 여행 경비의 50%, 최대 1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120만 원)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2020년에 본 사업의 재정 지원금으로 150억 아르헨티나 페소(약 180억 원)를 2020년에 본 사업의 재정 지원금으로, 관광객의 수는 약 60만 명이었다. 환급금은 BNA(아르헨티나국민은행) 모바일 앱 전자지갑에서 수령가능하며, 2022년에는 여행, 요식업, 관광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previaje 공식 누리집/El Cronista, 2021.09.21.)

태국

2차 지역 개방, 워드 코로나 정책 실현

태국 관광체육부는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등 5개 지역을 10월 1일부터 개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태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1만 명대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워드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국은 10월 15일부터 21개 지역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태국 관광청은 각 지역에 통합 체계를 마련해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태국의 2차 개방 지역은 다음과 같다.

- 5개 지역 :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팻차부리, 후아힌
- 주요내용
 - 백신접종 완료 외래 관광객 무격리 입국 허용
 - 푸켓 샌드박스를 기본으로 지정 구역에서만 관광 허용
 - 매력적인 치앙마이(Chiang Charming), 후아힌에서 재충전(Hua Hin Recharge), 파타야로 이동(Pattaya Moves On) 등의 명칭을 붙여 홍보 계획

(출처 : Khaosid, 2021.09.13./TNN, 2021.09.11.)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 재추진

태국 정부는 오는 10월 5개 지역을 2차로 개방함에 따라 'We Travel Together' 지원사업을 재추진한다. 대상은 18세 이상 태국인(200만명)이며,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예산은 109억 8,800만 바트(약 3,845억 원)로 편성되었다. 주요 혜택은 숙박비와 항공료가 40%지원 되며, 여행패키지 상품 구매는 600 바트(약 3만 원)에서 최대 5,000 바트(약 18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출처 : Khaosod, 2021.09.13./TNN, 2021.09.11.)

브라질

2021년 관광산업 부문, 전자상거래 성장률 전년 대비 150% 증가

브라질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관광 부문의 전자 상거래 성장세는 지난 6월 대비 18.61%, 2020년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관광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증가와 위생 프로토콜로 인해 관광이 본격화될 것이며, 브라질은 녹색 관광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주요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브라질 관광부, 2021.10.09.)

오스트리아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경제 정상화 캠페인

오스트리아 국가홍보 캠페인 '리포커스 오스트리아(Refocus Austria)'가 오는 가을부터 앞으로 1년간 개최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자국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관광산업을 경제복구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혁신적인 유럽의 중심국으로서 이미지를 홍보하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오스트리아 외교부와 경제부는 공동 주최로 상공회의소와 오스트리아 관광청 등 민관이 협력해 세계적인 오스트리아 국가홍보 전략을 세웠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주제는 오스트리아 경제의 미래 지향적인 핵심 역량인 재생 에너지, e-모빌리티, 디지털화, 기반역량 기술, 도시 기술과 관광 등의 5개 분야이다. 2022년 6월 말까지, 100여 곳 이상의 오스트리아 재외공관은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내 수출 산업의 효율성과 강점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쿠르츠(Krutz) 오스트리아 총리가 '리포커스 오스트리아(Refocus Austria)' 개막식에서 강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성장 촉진 : 수출경제가 오스트리아 경제성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
- 재외공관의 경제적 네트워크 확대, 오스트리아 정부 부처와 민간영역과의 협력 강화 :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외공관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과 노하우(Know-how) 확대·강화, 외무부와 상공회의소, 정부 부처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

(출처 : ORF, 2021.09.07./DERSTANDARD, 2021.09.07./Bundesministerium, 2021.09.09.)

인도

백신 증명서를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와 국제여행 개방 모색

인도 관광부는 의회에서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와 국제여행 개방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검역방침을 완화했다. 이에 인도 외무부에서는 국가 간의 백신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고 국제여행의 개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 정부는 자국 여행과 관련하여서 백신접종완료 방문객들에게 PCR 검사를 면제하도록 권고하는 서한을 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인도 국민 절반가량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동참했으나, WTO가 승인하지 않은 자국 생산 백신으로 전 세계의 백신 정책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인도 정부는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코백신(BBV152)을 인정해주는 국가와 개별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여행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견도 있었다.

(출처 : Travel World, 2021.08.09.)

관광통역안내원 업종 활성화 정책 추진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관광 증진과 관광통역안내원(Tour guide)의 문화관광 분야의 업무적 상호연계를 위해 UAE 관광통역안내원 협회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 내용에는 DCT 아부다비 관광통역안내원을 위한 관광지 입장료 면제와 관광통역안내원의 전문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호사니(Hosani)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UAE 젊은이들에게 관광 분야를 중요한 직업적 선택으로 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회복 전략의 일부로 UAE의 지속적인 경제 다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2021.08.29.)

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1. 필리핀 한국 문화원, 온라인 한국 문화 실험기 : 팬데믹이 가져다준 기회
2. 비디오 게임 산업의 성장과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
3. 기후 변화와 문화유산의 상호연관성

필리핀 한국 문화원, 온라인 한국 문화 실험기 : 팬데믹이 가져다준 기회

2021년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2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문화원이 필리핀에 개원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첫 번째로 한국 전쟁에 7,420명을 파병한 우리의 전통 우방이자,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사랑하고 또한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친구 같은 나라이다. 이러한 필리핀의 호의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원은 10년 동안 한국문화를 현지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랑받아 왔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리조치 기간 동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등 한국드라마가 전 사회계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음에 따라 K-드라마, K-Pop 외에도 한글, 한식 등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리조치로 인해 필리핀 현지 문화 관련 시설은 현재까지 문을 닫고 있으며, 우리 문화원은 2019년 3월 이후 국유화 추진으로 전시실, 도서관 등 문화 향유 시설 없이 임시 사무실만 운영 중인 상황이다. 우리 문화원은 지난해부터 필리핀 현지인들과의 물리적인 접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다양한 시도는(현장감을 느끼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물리적,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적 소외계층”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장점이 있었다.¹

¹ 필리핀의 영토는 약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문화원은 그 중 루손섬에 있어,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 등에서 문화원의 접근 난해

그리고 우리 문화원이 온라인을 주된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페이스북 팔로우 32만 명, 유튜브 구독자 2만 명) 좀 더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팬데믹 전에는 오프라인 행사에 집중하면서 온라인은 행사 홍보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필리핀 현지인들과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있는 온라인 행사 외에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콘텐츠를 제공해야 했으며, 결국 우리 문화원 차원에서 홍보하고 싶었던 주제를

인영아 주한필리핀문화원장



주필리핀문화원 국유화 건물 착공식(2012.09.), 조경도



로비 조감도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래는 다양한 실험 중에 의미 있었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쌍방향 온라인 한글 수업

문화원 세종학당 한글 수업은 일 년에 약 1,000여 명의 학생이 수료하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수업이었으나 2019년 문화원 향유 시설이 문을 닫은 이후 수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작년 9월 온라인 시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현지의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 부족, 학생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으나, 시범 수업 9개, 131명 모집에 8,326명이 지원하는 등 필리핀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을 점차 확장하였으며, 1년 동안 832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문화원으로서 모험이었다. 일방적으로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수업은 문화원 차원에서 전혀 경험이 없었고, 인터넷

환경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필리핀 전역에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이 지속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는 한글 수업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으나, 다른 문화 콘텐츠에 비해서 한글 수업은 온라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는 점, 현지인들의 반응이 제일 뜨거웠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도전이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한글 온라인 강좌는 팬데믹 이후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 강좌 외에도 현지인들이 한글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한글 수업 중



2. 소외계층과 한국문화

그동안 우리 문화원은 K-Pop 페스티벌, 한국영화제, 거리 축제 등을 개최하며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받아왔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 2018년부터 한글을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공립학교에서 “찾아가는 한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현지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한국문화원이 위치한 수도 마닐라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 문화를 즐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게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떻게 하면 문화원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19로 필리핀 현지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현장에서 문화를 즐길 기회가 거의 없어짐에 따라 우리 문화원은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한국 문화를 통해 위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필리핀 전역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근무자들(의료진, 청소부, 경비원,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의 사연을 선별하여 한국문화 힐링 패키지²를 전달하고, 사연과 한국 가수의 공연을 담은 온라인콘서트를 제작하여 문화원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였다(K-Healing : Overcome Together)

2 케이팝/한국영화-드라마/한식/한글/케이뷰티 5가지의 한국 문화 힐링 패키지를 구성. 사연 신청자가 신청 시 원하는 패키지 선택

본 행사를 통해 현지인들은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에 무척 감동하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며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우리 문화원은 동 행사를 통해 필리핀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으며, 특히 경제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한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제 한국 문화는 현지에서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게 만들어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

3. 이벤트 중심에서 주제 중심의 홍보

우리 문화원은 주요 국가 정책과 문화행사 등에 관한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SNS를 통해 알리는 등 정책 또는 이벤트 중심의 홍보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작년 필리핀 현지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캔슬코리아(#CancelKorea)’라는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김치,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논쟁이 쟁점이 됨에 따라 우리 문화원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2021년 한 해 동안 제공하기로 하였다.

올해 연간 대 주제를 ‘한국 전통문화 바로 알리기’로 정하여 월별로 주제를 정해 매주 목요일(Traditional Thursday) 한복, 한식, 국악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카드 뉴스 또는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어 낱말카드도 한국 전통문화와 월별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설날, 3.1절, 단오, 광복절 등 주요 명절과 국경일에는 그 의미와 이야기(Behind Holiday) 전달하고 있다. 비록 조회 수는 대중문화 콘텐츠보다 떨어지는 편이나 우리 문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도 연간 주제에 맞추어 김치를 활용 요리법 동영상 제작하고, 한복을 주제로 하는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행사 기획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인력 부족으로 주로 행사에 집중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주요 플랫폼이 바뀐에

따라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그동안 확보된 온라인 고객을 상대로 장기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전통문화놀이 체험



작년 5월 필리핀 문화원장으로 부임하였으나, 1년 넘는 동안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문화원장으로서 한 번도 현장 행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은 아마도 국유화된 문화원 건물을 현장 개관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만 개원해야 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문화원이 될 예정이다. 필리핀 전역에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온라인상에서 함께 새로운 문화원을 체험해 보는 실험을 기획 중이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 오히려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보람도 느꼈지만, 임기가 만료되기 전, 한 번이라도 한국문화를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 직접 뵙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한다.

비디오 게임 산업의 성장과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

본 내용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When video games meet IP law

발간일 2021.06.

발간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링크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21/02/article_0002.html

요약

본 보고서는 지식재산권(IP) 관점에서 비디오 게임 산업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디오 게임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게임 아이템, 캐릭터, 상표 등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지식재산권법은 비디오 게임의 제작 콘텐츠 보호와 게임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내용

비디오 게임 산업은 수년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디오 게임 산업의 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시켰다. 2020년 10월 뉴주(Newzoo)¹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의 전 세계의 게임 시장은 2019년 대비 19.6%보다 증가한 1,74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2020년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150억 달러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의 게임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30억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계기 2020년은 비디오 게임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20년 4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Fortnite Battle Royale)에 모인 1,200만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 게임 내 트레이비스 스캇(Travis Scott)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사례가 그 예이다. 이는 비디오 게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¹ 비디오 게임의 전문적 조사연구 회사

비디오 게임 산업은 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해지고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다양한 게임 장르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으며, AAA 게임(대형 게임사가 대량의 자본을 투자한 게임)은 수백 가지의 스토리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그래픽 기술력도 실사와 흡사하게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인들을 비디오 게임에 등장시켜 그들의 표정이나 몸짓 등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한다. 다른 창작예술과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 시장의 급속한 발전과 비디오 게임 자체의 혁명은 지식재산권(IP)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디오 게임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청각 콘텐츠, 이미지 사진,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지식재산권은 비디오 게임의 다양한 콘텐츠 요소들을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디오 게임 개발자, 게임 유통업, 심지어 게임 이용자에게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디오 게임 업계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비디오 게임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비디오 게임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

비디오 게임의 그래픽은 현실과 매우 흡사하게 구현되고 있다. 특히, 전쟁을 주제로 한 게임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좀 더 게임의 몰입감을 주기 위해 실제 무기, 군용 차량, 군복과 장비 등을 실사와 매우 흡사하게 묘사한다. 이러한 종류의 게임은 상표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상표 사용의 정당화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비디오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2020년 '콜 오브 듀티 시리즈(Call of Duty series)'에서 험비(Humvee) 군용 차량 사용에 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험비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던 AM제너럴(AM General)은 액티비전(Activision) 게임 개발사가 '콜 오브 듀티' 게임 속에서 험비 차량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고,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뉴욕 지방법원은 액티비전 게임 개발사의 AM제너럴 험비상표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이 게임 개발사에 손을 들어 준 이유는 액티비전의 험비 상표 사용 목적은 현실적인 전쟁 게임을 구현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AM제너럴처럼 험비 군대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뉴욕 지방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서 '로저스 테스트(Rogers test)' 판례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다. 로저스 테스트는 1989년 그리말디 대 로저스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상표권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 청구에 대한 거부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험비 사건은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확실한 돌파구이지만, 이는 오직 미국에서만 적용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예술적인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없다.

게임 개발자의 메시지 문구, 이스터 에그(Easter egg)

비디오 게임에서 지식재산권의 또 다른 분쟁 사례로는 '이스터 에그(Ester egg)'가 있다. 이 용어는 게임 개발자가 비디오 게임에 비밀 메시지를 농담이나 인용문구 등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터 에그'는 다른 게임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문화예술 작품, 실제 사건들, 유명 인물들, 이전 게임 등 다양한 소재들이 인용된다.

하지만, '이스터 에그'는 다른 저작권 보호물을 도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저작권 침해 여부의 법적인 판단은 도용한 부분과 사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도용 정도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경우, 지식재산권법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위반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작품의 특정 부분이 사용될 경우, '이스터 에그'는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 권리를 침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저작권에서 잘 알려진 개념으로 '공정 이용'이 있다. 공정 이용은 미국 저작권 제도에서 확립된 개념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 이용의 원칙은 법체계와 관할권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저작물 사용이 실제로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습법 국가에서 저작권의 공정한 사용 원칙은 개방형 규범에 의해 정의되며 저작물의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저작물의 성격 등을 포함한다. 개방형 규범을 관할 하는 지역에서도 모든 '이스터 에그'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용자제작콘텐츠(UGC)

누리소통망과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은 게임 이용자들이 사용자제작콘텐츠(UGC)를 만들고 공유하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UGC는 순수제작물로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 글, 새로운 캐릭터 등과 같은 제작물을 의미한다. UGC는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이용자와 해당 분야의 개발자들과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UGC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비디오 게임 기반의 UGC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은 항상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게 된다. 게임 이용자는 '최종 소비자 사용권 계약' 또는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게임 개발자는 게임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콘텐츠의 공유를 지양하고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유해한 콘텐츠와 연관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UGC에 자신의 제품을 공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타인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소니(SONY)는 닌텐도(Nintendo)로부터 소니가 출시한 비디오 게임 드림스에서 닌텐도의 유명한 캐릭터 마리오가 등장하는 UGC를 삭제하도록 강요받았다. 게임 개발자들은 모든 UGC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업계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정책제언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볼 때, 비디오 게임을 제작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산업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반면, 법적 규범은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법 입안자들이 비디오 게임의 창의적 특성을 문화예술 작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게임 개발자는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피해 제작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기후 변화와 문화유산의 상호연관성

본 내용은 유네스코(UNESCO)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CULTURAL HERITAGE FOR CLIMATE ACTION

발간일 2021.06.17.

발간처 유네스코(UNESCO)

링크 <https://unesco.org.uk/conference/heritage-and-our-sustainable-future/cultural-heritage-for-climate-action-brief-report/>

요약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문화유산도 급격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고고학적 퇴적물이 유실되는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위협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문화유산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탐구했다.

주요내용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는 지역사회의 생계, 식량안보, 복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 유산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문화유산들 중 다수는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문화유산 중 특히, 무형 유산은 기후 변화에서 회복력의 원천이며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전통, 관행, 사회적 관습, 윤리적 가치 등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의 탄력적인 접근과 지침을 제공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지역사회의 회복력, 그리고 기후 변화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 문화유산 연구와 방법론, 보존 접근법과 관리 체계에 종합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밀레 지역의 식문화 유산, 아프리카의 문화유산, 오크니 제도 신석기(HONO) 유적 3가지 사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존 방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식량의 미래를 위한 밀렛(Millet) 지역의 문화유산과 기후 변화

식문화 유산,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선택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구전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변화는 농업 생활(Changing Farming Lives)' 프로젝트에서 인도 남부의 소규모 경작을 일구는 여성들이 어떻게 따뜻한 지역의 기후에 맞서 밀렛(Millet)의 음식을 보관하고 경작을 유지하고, 식 문화의 전통지식과 유산을 보존하는지 기록되었다. 밀렛의 사람들은 변화하는 날씨 환경에 적응이 강한 식물에서 씨앗을 선별했고, 경험에 의해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농부들은 전형적으로 콩과 맥을 함께 재배해 다양한 영양식품을 경작하고, 지역 음식문화의 보존과 농경의 생태학적 복원력을 유지했다. 유산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은 고대 인도의 천문학에 의해 확립된 27가지 우기(雨氣)였다. 선조의 경험에 의해 체득한 우기의 다양한 유형은 지금까지 밀렛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삶의 방식은 더 나아가 민속종교 신앙과도 연계돼 밀렛의 또 다른 측면의 무형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농사와 음식 중심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결합된다. 풍부한 농작물 수확과 식량 획득은 신의 축복의 결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의식이 행해지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의 예술, 문화 그리고 유산을 통한 기후활동 지원

기후 변화는 아프리카의 많은 문화유산을 포함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킬와 키시와니(Kilwa Kisiwani)와 송고 므나라(Songo Mnara, 탄자니아)에 위치한 인도양의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점점 더 격렬해지는 폭풍은 고고학적 퇴적물과 육지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나이지리아에 있는 수쿠르 문화 경관은 강우(強雨)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폭풍우, 농업 생산과 전통 건축 자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녹색 식물로 덮인 토양의 비율(vegetation cover)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세계유산기금은 기후유산 네트워크(Climate Heritage Network) 단체, 지역 협력자,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아프리카 기후의 취약성 지수(CVI) 시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기후 변화로 인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유적지 관련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결과로 인한 물리적, 생태학적 위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격 학습 기술은 아프리카 현지의 문화유산에 미치는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워크숍을 통해 현지 유산 전문가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오크니 제도 신석기 유적의 기후 변화에 대한 관리 취약

오크니 제도 신석기 유적(HONO)은 스코틀랜드 북부 오크니 섬 군도에 있는 4개의 신석기 유적들로 구성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 유적들은 그 당시의 생활, 의식, 죽음과

매장 등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5,000-4,000년 전에 번성했던 전통문화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 2019년에 HONO 기관은 호주의 우수 대학과 과학자 협회와 함께 기후 취약성 지수(CVI)의 글로벌 문화 시범사업 이행에 협력했다. HONO는 워크숍을 개최해 주요 기후 변화의 요인과 유적지의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의존성 등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오크니 제도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취약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워크숍을 통해 현재 개정된 유적지 현장 관리 계획은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대한 방안이 계획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책제언

기후 변화는 문화와 자연 유산을 포함해 인간의 생존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은 기후 변화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밀렛(Millet)의 식량 유산'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인도 남부의 밀렛 지역 사람들은 선조들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기후 맞서 곡식의 씨앗을 오랫동안 저장하고 변화하는 날씨에서도 농경의 생태학적 복원력을 유지했다. 이는 전통적인 지식과 실천은 기후 적응에 대한 접근법과 완화 전략의 실행을 보여주었다. 아프리카와 오토니 제도 신석기 유적(HONO)의 사례들은 기후 변화로부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과학에 기초한 전문지식과 지역사회의 관행을 결합하는 것이 혁신적인 유산 접근법과 방법론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로부터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응 전략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III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10월 활동계획]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 **온라인 공연 : 케이락컴퍼니의 <풍류에 살으리랏다>** [10.08. | 문화원 유튜브]

- 강원도 아리랑의 선율을 재즈풍으로 각색한 '아리랑5', 다리 농악의 대표적인 장단인 칠채 장단과 전라도 민요 진도아리랑을 강원지방의 메나리조로 연주

○ **한국문화 소개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9월호 발간 배포**
[10.4. | 문화원 누리소통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뉴스레터]

-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온라인 기자단과 한국문화에 관한 기사를 매달 작성해 7,000여 명의 문화원 뉴스레터 회원에게 배포
- 10월 뉴스레터 : 1. 단군신화, 2. 한지, 3. 한국의 주거제도 소개(월세와 전세), 4. 한국의 간판(인사동한글 간판소개), 5. 한국의 환승제도(대중교통)

○ **이탈리아에서 한국 찾기 SNS 행사 수장자 발표** [10.04.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이탈리아에서 한국 찾기' 온라인 챌린지 수상자 발표
- 수상자 총 10명 선정 : 1등~3등 선정, 참가상 6명

○ **<내가 사랑하는 한국> 영상 시리즈 제9편** [10.13.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 10명을 인터뷰 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제작, 한국 소개
- 제9편 :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림작가 편 제작과 온라인 송출

○ **한글날 맞이 '예쁜한글쓰기 대회'수상자 발표** [10.15.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의 시 3편 중 1편을 선정해 주어진 원고지에 필사해 제출, 우수자 총 5명에게 수상상품 전달

○ **G20 정상회의 지원** [10.06.~10.24. | 로마, 로마호텔]

- 10.06.~10.09.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대표단 지원
- 10.18.~10.24. G20 정상회의 VIP 및 기자단 방문관련 지원
- 10.30~10.31 G20 정상회의 프레스센터 지원

독일

○ **SNS로 보는 한국문화** [10.08.~10.31. | 누리소통망]

- 다양한 한국문화를 누리 소통망을 통해 소개하는 카드뉴스 시리즈

- 10.08. <한글날 편>
- 10월 4주 <e-스포츠>

○ **웹툰으로 보는 김치 워크숍** [10.08. | 베를린 자유대]

- 한국 전통 김치 중 하나인 짝두기와 웹툰을 주제로 워크숍 개최

○ **온라인 한국문학클럽** [10.06. | 줌(ZOOM)화상 채팅]

- 매월 한국문학 1편을 선정, 관련 작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황석영 작가의 <낮익은 세상>

○ **버스킹 공연 <베를린에 KOREA를 입히다 >** [10.09. | 베를린 잔다르멘마르크트]

- 한글날 맞이 기념, 베를린 맘스 챔버 '올림'의 버스킹 공연

○ **한글날 계기 서예 전시회** [10.08.~12.10. | 문화원 로비]

- 한글날을 기념해 문화원 서예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을 문화원 로비에 전시

○ **케이팝 콘텐츠 공모전 <K-Pop DIY> 마감** [10.01.~10.15. | 공식누리소통망에 접수]

- 케이팝을 주제로 영상, 그림, 글 등의 3가지 부문 콘텐츠 공모전 마감, 평가 진행

○ **통일 관련 행사 <평화·통일을 바라본다 >** [10.24. | 독일 할레시 울리히교회 공연장]

- 독일 할레시와 협공, 통일 관련 행사 개최

○ **한국문화 체험관 사업** [10월 말 예정 | 문화원 체험관]

- 한식, 케이팝, 민화 등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행사 개최

○ **한국문화가 있는 날 : 무대 공연(1차)** [10. 27. | 문화원 공연장, 유튜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한국을 주제로 실시하는 정기공연
- '트리오 뉘앙스' 팀 공연

영국

○ **케이뮤직 페스티벌** [10.06.~11.17. | 런던 주요 공연장]

- 올해 8회를 맞이한 한국음악 축제, 악단광칠 외 6개 공연팀이 런던 주요 공연장에서 한국음악 선보일 예정

○ **‘한글날’ 기념 행사** [10.09. | 포일즈 서점]

- ‘한국의 달’ 행사가 개최되는 포일즈 서점에서 한글날을 맞이해 약 2시간 동안 캘리그라피 등 행사 진행

○ **영국박물관 한국예술 보존 강의** [10.07., 10.14. | 온라인]

- 한국 고미술 회화 유물 복원 현황과 고미술에 사용되고 있는 한지에 대한 심층 강의 2주 간 진행

○ **제20기 K-Pop 아카데미** [10.02.~11.27. | 온·오프라인]

- 영국에 거주하는 한류 팬을 대상으로 10주간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 2021년 10주년을 맞이해 졸업생 참여 확대

○ **한식 메뉴 주간** [10.11.~10.15. |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 브라서리 레스토랑]

- 현지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한식 메뉴 주간을 진행, 한식 메뉴 판매

프랑스

○ **<Femmes, debat et societe> 여성협회 행사** [10.04. | 문화원]

- 현지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임, 공연, 전시 등의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 소개

○ **2021 라로셀 한국문화 축제 <Ci en Coree>**

[10.01.~10.15. | 라로셀시 문화 예술 기관]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 상자 전시, 광주세계김치축제 중 온라인 김치 아틀리에, 판소리와 민요 공연 등의 행사 개최

○ **한글 특별전시** [10.01.~10.31. | 문화원]

- 세종대왕의 철학과 예술이 반영된 한글을 조형적으로도 해석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작품 특별전
- 시각디자인, 패션, 제품 등을 통해 재해석한 한글의 매력 소개

○ **정다영 작가 개인전 <Non lieux>** [10.4.~10.16. | 크루스 갤러리]

-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관찰한 세상을 작품세계로 재해석한 작품 소개

○ **한국 전래동화 번역서 시리즈 출간 기념회** [10.06. | 문화원]

- 이마고가 출판한 한국 전래동화 번역서 시리즈(1-3권) 소개, 주요 전래동화의 일부 상영

○ **시네-판소리 특별 상영회 : <서편제> 상영회** [10.07. | 문화원]

- 10.07.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 상영, 10.13. <춘향뎐> 상영

○ **몽펠리에 ‘한국 영화’ 축제**

[10.8.~10.10. | 몽펠리에 에밀 졸라 미디어테크, 장펜소 공연장]

-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몽펠리에 시 소재의 문화예술기관에서 한국 영화제 개최
- 이창동 감독의 <시>, 박찬욱 감독의 <나는 사이보그다>, 상수 감독의 <하녀>, 봉준호 감독의 <마더>와 <괴물>,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상영

○ **<검사와 여선생> 상영회** [10.16. | 파테재단]

- <검사와 여선생> 상영 후 해설자와의 만남 행사 진행

○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전** [10.6.~11.10. | 문화원]

- 1954년에 창설,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전 개최
-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 29명의 작품 전시(김환기, 서세옥, 최종태, 이신자 작가 등)

○ **제16회 파리한국영화제** [10.26~11.2. | 파리 퀴블리시스 영화관]

- 유럽 내 가장 중요한 한국영화제 중 하나, 총 40편 상영(장·단편영화 각 20편)

○ **제2회 SOUM 국제 무용 페스티벌** [10.25~11.2. | 문화원, 온라인]

- 프랑스 내 한국 현대무용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운영, 온오프라인 공연 개최
- 이선아의 <침향무>,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초인>, 주빈 컴퍼니 <새다림>, 언플러그드 바디즈 <호모루피엔스>, 단단그룹의 <보따리>등 온라인 공연 개최 예정

○ **NHK 트리오 콘서트** [10.27. | 문화원, 온라인]

- 프랑스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NHK 트리오(색소폰, 콘트라베이스, 드럼)의 재즈 콘서트

○ **『Spicy, non-spicy』 출간 기념회** [10.29. | 문화원]

- 프랑스 내 한국음식이 인기에 힘입어 송지민 작가의 한식 레시피 서적 『Spicy, non-spicy』 출간 기념회 개최, 매운 양념과 맵지 않은 양념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 조리법 소개

○ **박경소 재즈 콘서트** [10.20. | 문화원]

- 2017년 KBS 국악상 현대음악 부문 수상자 박경소의 재즈 콘서트

폴란드

- **한글날 계기 행사 ‘내가 만드는 한글’** [10.01.~10.18. | 누리소통망]
 - 사물을 한글로 창작하는 행사, 참여자에게 금속활자 체험 키트와 기타 기념품 증정
 - 10.18. 최종 우승자 발표
- **2021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의 디지털 한국 문화예술 워크숍 개최**
[10.16. | 온라인 줌(ZOOM)]
 - #1. 디지털 한국화 작가되기 :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 한국화의 특징과 사군자에 대한 이론 교육과 디지털 페인팅도구 활용 사군자 그리기 실습
 - #2. 디지털 한글 캘리그래피 작가되기 : 한글 창립배경과 구조적 특징에 대한 이론 교육, 디지털 페인팅도구 활용 한글 캘리그래피 실습
- **한국어 카드뉴스** [10월 | 누리소통망]
 - 한국어 학습 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10.04.~10.31. | 누리소통망]
 - 가을학기 한국어와 정규반, 특별반 운영
- **<수목: 자연, 우주> 전시전** [9.23.~9.30. | 문화원 온-오프라인]
 - 수목화 청년작가 2인의 작품 전시, 한국문화 소개와 홍보

헝가리

- **유람선사고 2주기 추모: 이마에스트리 콘서트** [10.06 | 헝가리안헤리티지센터]
 - 유람선 사고 2주기 추모 대면행사, 한국인 남성 성악가로 이루어진 이마에스트리 콘서트
- **한국문화의 날** [10.09 | 데브레첸]
 - 한글날을 계기로 농촌지역(데브레첸)에서 영화 상영, 워크숍, 공예, 강연 등을 통해 한국문화 체험과 홍보
- **ELTE대학 한국학 포럼** [10.08 | ELTE대학 한국학과 강의실]
 - 한국문화 관련 6개 주제(영화, 문학, 미술사 등) 강좌와 토론회 개최

- **Sac On Screen 상영 행사** [10.12.~10.26. | 문화원 공연장]
 - 공연 <DITTO PARADISO>과 코리안심포니 공연 <스피릿오브베토벤>의 실황 상영
- **TOPIK 시험 개최** [10.16. | 문화원]
 - 현지인 대상 한국어 자격능력시험(TOPIK) 운영
- **<벽안(碧眼)의 시선, 조선풍경>(가제)** [2021.10.22-2022.01.28 | 문화원 기획전시실]
 - 대한제국 말기, 한국 전통의 풍경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복합 방식으로 표현
 - 헝가리 사진가 보조키 데죄(Bozóky Dezsó) 사진전
- **독서클럽 운영** [10.16.(격주 토요일) | 문화원]
 - 한국 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독서클럽
- **(헝가리문화원) 한국화장품 ROSSMANN 입점 기념 행사** [10.21. | 문화원]
 - 현지 주요 생활용품 체인점인 ROSSMANN 내 한국 화장품 입점을 기념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개최
- **김민찬 재즈콰르텟 공연** [10.30. | 문화원 공연장]
 - 유럽에서 활동중인 재즈 드러머 김민찬 콰르텟 공연

러시아

- **한글날 기념 행사 : 한국 번역도서 전시회 <지속>** [10.01.~10.30. | 문화원 3층]
 - 한글날 맞이, 한국문학 중 러시아어로 번역된 출간된 도서 전시회 및 독후감 대회 개최
- **한글날 기념 행사 : <모스크바, 한글 꽃이 피었습니다> 전시전**
[10.05-12.31 | 문화원]
 - 문화원 이전 개원과 한글날 기념 계기 강병인 작가 작품 30여점 전시
 - 10.05 개최 행사
- **한글날 기념 행사 : 한국 시 낭송 대회** [10월 1주차 예정 | 누리소통망]
 - 한글날 기념 맞이 문화원 세종학당 학생들의 '한국 시 낭송'대회와 '한국 시화전' 대회 개최

-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기념 행사 : 현대 무용단 모던 테이블의 <다크니스 폼바> 공연** [10.08.~10.09. | 블라디보스톡 마린스키 극장]
 - 체홉국제연극제 소속 <블라디보스톡 제1회 태평양연극제>의 개최 계기 현대무용단 모던테이블 공연 2회 진행
- **케이팝(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10월 1주차(협의중) | 누리소통망]
 - 서울신문 주최 케이팝 경연대회 진행, 지역 온라인 본선 개최
- **문화원 국유화 이전 개원 기념 견학 행사** [10.01.~10.27]
 - 한국어강의 1급 600명 수강생 대상 견학 행사 11회 개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회 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문화원 원내 정기영화상영회** [10.01.~11.01. | 문화원 3층 강당]
 - 문화원 내 보관 중인 영화 DVD를 활용해 정기영화상영회 개최
 - 총 11작품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웰컴투 동막골>, <오직 그대만>, <전국 노래자랑>, <끝까지 간다>, <피끓는 청춘>, <플랜맨>, <도둑들>, <괴물>, <완득이>, <과속스캔들> 등
- **문화원 원내 정기영화상영회** [10.01.-11.1. | 문화원 3층 강당]
 - 한-러 상호교류의 해 계기 한국의 우수독립영화 8편과 러시아의 우수독립영화 4편의 온라인 상영회 개최
- **문화원 국유화 이전 개원 기념 견학 행사** [10.01-10.27]
 - 연극 <효명> 외 참가 예정
- **맛있는 한국 : #3. 김치활용음식 조리영상** [10.20.~11.17. | 누리소통망]
 -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시리즈는 김치의 소재를 활용 5가지 음식 소개
- **문화원 이주 개원 기념 행사** [10.18.~11.21 | 누리소통망]
 - #1. 10.18.~11.14. '한국문화원' 문자 그래픽/캐릭터 공모전
 - #2. 10.25.~11.21. '축하메시지' 행사

스페인

○ 한국동화 이야기 : 호랑이와 꽃감 [10.10 | 누리소통망]

- 현지에서 한국 전래동화를 유명 인플루언서가 소개

○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 한국의 정물화 책거리

[10.01.~10.31.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및 온라인 전시관]

- 전통 책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민화작품 전시, 주프랑스문화원과 연계하여 전시 개최

○ ‘한글날’을 위한 한글주간행사

[10.04.~10.10. | 문화원 누리소통망, 문화원 다목적홀, 강의실, 도서자료실]

- #1. 한글주간온라인행사 : 스페인 관광명소, 음식, 풍습 등 스페인을 소개하고 싶은 콘텐츠를 발굴해 사진(혹 그림)과 함께 한글로 표기, 가족(친구) 이름 한글로 바르게 쓰기 대회
- #2. 한글주간대면행사 :한복체험관 운영, 예코백 한글꾸미기, 한글 이름쓰기 배우기
- #3. 한글 전야 : 스페인 전역 대상 한글, 문화원, 세종학당 소개, 세종학당 수강생들과의 대화 등
- #4.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 오감도: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 [10.28~1.16. | 온라인 전시관]

- 2021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프로그램 일환으로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작품을 5개의 주제로 나누어 한국현대미술의 새로운 한국성 제시

터키

○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단체 전시회 [10.8~10.30. | 문화원]

- 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밝은 세상을 주제로 조각, 캘리그래피, 서양화, 도예, 사진작품 등 전시

○ 미디어아트 사업 [10.9~10.23. | 앙카라 백화점]

- 터키문화원 개원 10주년 계기 3D 프로젝션 매핑 행사 개최

○ 한국어말하기대회·예쁜한글쓰기대회 [10.09. | 온·오프라인]

-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

○ **2021 국경일 행사** [10.13. | 앙카라 웨라톤 호텔]

-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성악가와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해 공연

○ **제78회 한국어능력시험** [10.16.]

- 주재국 내 한국어학습자들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진행

○ **2022 GKS 학부 선발 면접** [10.20. | 누리소통망]

벨기에

○ **대한민국대사배 태권도대회** [10.09. | ULB 브뤼셀 자유대학]

- 벨기에 내 태권도 수련생들이 참가하는 품새 태권도 대회이며, 프랑스어권협회가 협력해 개최하는 2021년의 첫 대면대회

○ **<브뤼셀 만화축제> 120주년 수교 기념 : 한·벨 만화전 <만화로 말한다>**
[10.01.~10.24. | 벨뷰(BelVue) 박물관]

- 한·벨 수교 120주년을 맞아 한국과 벨기에 만화작가 소개와 만화작품 전시
- 총 8편 전시(한국 5편, 벨기에 3편) : 오세영 <부자의 그림일기>, 백성민 <토끼>, 최호철 <태일이>, 앙고 <나쁜 친구>, 융 헤넨(Jung Henin) <피부 색깔=꿀색 Couleur de peau : miel>, 유디트 바니스텐달(Judith Vanistendael) <흑인과 여인 De maagd en de neger>, 마틸드 반 겔루웨(Mathilde Van Gheluwe) <늑대가 떠난 동안에 Pendant que le loup n'y est pas> 등

○ **<한국만화의 비상: 만화, 웹툰> 전시** [10월 중 | 벨기에 만화박물관]

- 한국의 고유한 만화문화인 만화방을 재현하고 웹툰 소개, 한국만화의 역사와 작가, 작품들을 재조명

○ **2021년 한국문화원 하반기 태권도교실** [10월 중 | 문화원]

- 태권도 역사, 태권도 정신, 태권도 기본자세와 태권도 우수성 전파하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수강생 모집

○ **해외국악문화학교(예정)** [수업기간 10월~11월 | 문화원]

- 한국문화를 알리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국악의 세계를 위한 거점 확보

○ **한국의 궁궐과 왕실 행차 특별전시** [09.13-10.15 | 문화원]

-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닥종이 인형 1,000점, 한국의 궁 사진과 영상, 전통 악기와 종묘제례악 영상과 사진 전시

○ **한국 문학 코너** [10월 중 | 벨기에 내 현지 서점]

- 현지 서점 내 한국문학 작품 독립 코너 운영, 독후감 공모전과 도서증정 이벤트 진행

○ **세종학당** [10.01.~10.31. | 온라인 줌(Zoom)]

- 총 220명 수강생(수준별 10개 반 구성)

○ **<코리안 미디어월 이이남> 전시** [10.01.~10.31. | 대사관 미디어월]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작품으로 이이남의 <다시 태어나는 빛> 등의 미디어 아트 작품 5편 전시

○ **한국문학 북클럽** [10월 | 문화원]

- 한국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한국 소설 선택하고 참여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 **문화강좌** [10월 | 문화원 줌(Zoom)]

- 서예, 한지공예, 장구 등 강의 운영
- 총 44명(서예반 24, 한지공예반 10, 장구반 10)

○ **보자르협력 한-벨 수교기념 한국공연시리즈** [10.15.~10.31. | 보자르 아트센터]

- 10.15.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한국 수상자 트리오>
- 10.17. <보자르 넥스트 제너레이션(왕립음악원 한국연주자 공연)>
- 10.20. <퀸엘리자베스콩쿠르 한국 수상자 트리오> 콘서트
- 10.30. <퀸엘리자베스콩쿠르 한국 수상자 트리오>

○ **남북관계 특별 세미나** [10.13. | 프레스 클럽]

- 문정인 특보 초청 남북관계 특별 세미나 개최, 위셀-유럽 프레스 클럽과의 협력으로 벨기에 내 언론인 및 학계 전문가 대상 세미나 개최, 유럽 내 주요 언론 홍보 협력을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동시 송출, 언론인 대상 한식체험 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

○ **Alors On Chate Korea** [10.15.~10.29. | 누리소통망]

- 방송인 '줄리안 퀴타르트' 가 알려주는 K-POP 및 조선팝 등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영상 콘텐츠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 Bright Festival 하석준 <수도자> 야외전시**
[10.28.~11.06. | 브뤼셀 시내, 문화원]
 - 10.28.~11.06. 하석준 작가의 <수도자> 야외전시
 - 10.27.~10.31. 한-벨 미디어 아트 전시 <나를 방황하게 하는 것들> 문화원 내 실내 전시
- **벨기에 한국영화제** [10.22.~10.30. | BOZAR, Cinema Galleries, Studio Skoop, Cinema Luimiere-Antwerpen, Cinematheque Luxembourg]
 - 우수 한국영화 20편 상영
- **Filem'On 영화제 협력** [10.27.~11.06. | 온·오프라인]
 - 윤재호 감독의<파이터> 상영료와 자막료 지원
- **한국 문학 번역 워크숍** [10.28. | 문화원]
 - 한국 문학의 번역 방법에 관한 워크숍 개최
- **한국 문학 강의** [10.29. | 루벤대학교]

미주

워싱턴

- **국경일 기념 주미대사관 감사카드 발송** [10.05. | 누리소통망]
 - 문화계 인사들에게 주미대사 명의 감사카드와 선물 배송
- **한국어 강좌(Korean Language & Culture Classes) 가을학기 운영(계속)**
[10월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총 15~16개 강좌(일주일 1회, 총 15번 수업)
- **K-Art 정기 전시 <아이디플리즈 ID, Please>** [10.15.~12.03. | 문화원 전시실]
 - 이주 또는 이민으로 인한 민족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생성된 문화, 환경, 사회적 변화의 모습들을 영상,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풀어낸 작품
 - 조수빈 조윤경, 이승민, 조세핀, 최혜림 작가의 작품 23여 점 전시
 - 10.14. 사전 소규모 개막식 개최

○ <한복 특별전> 개최(연기) [10.13.~10.23. | 문화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1 한복 문화 해외 거점 사업'에 선정된 한복작품들 전시, 한복이라는 전통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과의 만남의 전시 개최

○ PASSPORT DC 참가, 대사관(문화원) 개방 행사(주최측과 협의 후 개최여부 결정)
[10.16. | 각국 대사관, 문화원]

- 세계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문화 소개

○ All About That Hallyu Com-on [10.23. | 문화원]

- 현지 한류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에게 K-Pop, K-Beauty 등의 다양한 한국 대중문화 소개와 홍보

○ 한글날 맞이 특별상영회 <말모이> 온라인 상영 [10.18.~10.24.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글날 맞이 특별영화 상영

○ 버지니아 영화제 한국영화시리즈 [10.27.~10.31. | 버지니아주 샬롯츠빌]

- 1988년부터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연례 정기 영화제, 한국영화 시리즈 (Korean Film Series) 프로그램을 기획해 한국영화 4편 상영

○ 핼러윈 데이 계기 한국문화소개 행사 [10.29. | 문화원 외부 공간]

- 각 국의 대사관은 현지 주민에게 공관을 개방하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 자국 문화 홍보, 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는 사탕과 한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

○ '회귀' 프로젝트: 버스킹 국악 콘서트 [10.28-10.31. | 조지워싱턴 워터 프론트 파크]

-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의 회귀는 전통음악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기획, 관객과 연주자간의 소통을 위해 큐브로 제작한 공간에서 특별 콘서트 진행

뉴욕

○ 한국 대표배우 200인 사진전 <THE ACTOR IS PRESENT>

[10.01.~10..9. | 문화원 갤러리 코리아]

- 지난 10년간, 한국영화와 독립영화의 발전 기여도, 국내외 영화제 수상자,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등의 기준으로 남성 배우 100인, 여성 배우 100인 총 200인의 인물사진과 한국영화의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전시

○ **뉴욕한국문화원 x 해외문화홍보원 <Enjoy K-arts> [10월 | 누리소통망]**

- 해외문화홍보원의 Enjoy K-Arts 공연 온라인 영상 시리즈의 홍보 진행
- #9. <더광대>
- #10. <혜경궁 홍씨의 꿈>

○ **팝파핑 코리안(PopPopping Korean) [10월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실생활 회화 한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영상을 매주 1편씩 문화원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소개
- 10.05. Episode 33. 이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 10.12. Episode 34. 저는 슬픈 노래를 좋아해요.
- 10.19. Episode 35. 머리가 아파요.
- 10.26. Episode 36. 오늘 아침부터요.

○ **K-Pop Song & Dance Online Competition 개최 [10.12.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K-Pop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류확산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특별 행사 마련

○ **집에서 즐기는 한국문화 : 한식 레시피 동영상 상영**

[10.04.~10.31.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온라인 한국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식진흥원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현지인들을 위해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
- 한식 레시피 동영상, 매주 <Recipes from the Korean Antique Cookbook> 에피소드 1편 상영
- 온라인 한국 고전 영화, 매주 <Film Critic's Choice Series: Darcy Paquet> 고전영화 1편 상영

○ **'함께 알아봐요. 한글날!' 행사 [10.04.~10.09.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글날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소개하며 온라인을 통해 행사 진행, 참가자 중 2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 증정
- 10.04.~10.08. 한글날과 관련된 문제 10개 제시
- 10.09. 정답 일괄 공개

○ **2021년 대중강연 시리즈 [10.27. | 문화원 누리소통망, 유튜브]**

- 뉴욕한국문화원과 비영리 미술인 지원단체인 알재단의 공동으로 주최로 미술가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예술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강연, 온라인으로 진행
- 10월 강연, 바이런 김-접점, 초청강사 유진 차이(Eugenie Tsai -브루클린 뮤지엄 현대 미술 수석 큐레이터)

○ **피아니스트 신창용 카네기홀 공연** [10.29. | 오프라인]

- 지나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재단에서 주최하는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카네기홀 공연은 2018년도 지나 바카우어 콩쿠르 우승자 신창용이 이번 공연에서 쇼팽, 슈만, 라흐마니노프 작품 연주

○ **뉴욕한국문화원 x 예술의전당 연극 <늬은 부부이야기>** [10.15. | 누리소통망]

- 예술의전당의 SAC On Screen 공연 작품 중 연극 <늬은 부부이야기> 공연 상영회 개최

LA

○ **한글 캘리그래피 워크숍** [10.05.~10.09. | LA한국문화원, South High School]

- 한글날 맞이 2021 캘리포니아 주 한글날 기념으로 한글 캘리그래피 워크숍을 개최해 다채로운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행사
- #1. 10.05. LA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진행
- #2. 10.08. South High School 한국어 고급반 수강생 대상
- #3. 10.09. 'Irvine Global Village Festival 2021'에서 현지인 대상

○ **2021 영어로 배우는 국악기 시리즈 온라인편 :**

[10.13.~10.27. | 문화원 공식누리집, 누리소통망]

- 현지인들에게 국악을 알리기 위해 국악기에 대한 설명과 연주는 물론 전공자들이 수련하는 과정 등을 재미있게 구성, 총 8편을 누리소통망에 송출
- #3. 10.13. <철현금>
- #4. 10. 27. <거문고>

○ **Korea Day in Balboa Park** [10.23. | Balboa Park, San Diego]

- 연간 1,0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명소인 발보아 파크 내 '한국관'개관 계기 한국문화 행사 시리즈 'Korea Day in Balboa Park' 개최
- Taste of Korea, Sound of Korea, K-Pop Cover Dance Festival, 한국문화상자 전시와 체험워크숍 등 마련

○ **2021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접수 마감** [09.13.~10.29. | 누리소통망]

- 한글날과 2021 캘리포니아 주 한글날 기념을 위해 한글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 기반 확보
- 미국 내 세종학당 수강생과 한국어 학습자들 대상으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함께 되새기고, 한국어 학습의욕 강화 및 자신감 고취

○ **미국 속 한국미술 <USC Pacific Asia Museum> 전시전**

[10.29. | 문화원 공식누리집, 누리소통망]

- 'Korean Art in America' 시리즈 중 4번째로 캘리포니아주의 USC Pacific Asia Museum(USCPAM) 한국 전시관을 집에서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큐레이터 라이브 전시투어 등 온라인 콘텐츠 문화원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개

캐나다

○ **오타와 한국 영화제 (OKFF) [10.13. | 영화제 공식누리집, 온라인 줌(ZOOM)]**

- 한국 영화 <택시운전사>, <곡성>, <바람의 언덕>, <밀양>, <애월>, <경주> 총 6편 온라인 상영
- 신보슬 큐레이터와의 대화 행사를 통해 작품과 프로젝트 로드쇼 소개, 질의 응답 진행
캐나다 관객과 문화교류 추진 등

○ **캐나다 한국 영화제 (몬트리올) [09.30.~10.30. | 영화제 공식누리집]**

- 여성의 시선으로 본 한국영화 상영 기획
- 한국 영화 <벌새>, <산후>, <서편제> 총 3편 상영

○ **<마술피리> 오페라 온라인 상영회 [10.06. | 누리소통망]**

- 현지인들을 위해 예술의전당 SAC 작품 중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온라인 상영

○ **2021 K-Pop Cover Dance Festival [10.09. | 캐나다역사박물관 극장]**

- 온라인 예선전을 통과한 10개의 현지 K-Pop 댄스 팀 경연대회

○ **2021 K-Academy 가을학기 [10.05.~12.10. | 온라인 줌(ZOOM), 문화원 다목적홀]**

-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5개의 문화강좌(전통무용, 장구춤, K-Pop 댄스, 해금, 한식) 프로그램 진행

○ **한식 웹툰 <곰곰이의 한식 여행>연재 [10.05. | 누리소통망]**

○ **2021 한국주간 : 제2회 캐나다 대사배 온라인 태권도 품새대회 입상자 발표 [10.05. | 누리소통망]**

- 총3개 디비전, 연령대별 대회 진행 후 대회 입상자 발표 및 영상 소개

○ **한국어 강좌** [10.4.~10.8. | 온라인 줌(Zoom)]

- 초·중급 한국어 강좌

○ **한글 사진 공모전** [09.21.~10.12. | 누리소통망]

- 한국주간과 한글날 기념 맞이해 생활 속의 한글이라는 주제로 공모전 개최

○ **한글 캘리그래피** [10.08. | 문화원]

- 한국주간과 한글날 기념 맞이해 한글 캘리그래피 강좌와 공모전 개최

○ **K-Food Series 한식 소개 영상** [10.11. | 누리소통망]

- 캐나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K-Food 한식 소개

- #3. <갈비찜> 상영

○ **문화원 온라인 한식 강좌** [10.11.~10.25. | 누리소통망]

- 현지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좌, 특정 한식을 선정해 음식 조리법과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 응답시간 마련

○ **전세계 대사배 온라인 태권도 품새대회 결선** [10.15.~11.16. | 누리소통망]

- 제2회 캐나다 대사배 온라인 태권도 대회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태권도 품새대회 세계결선 참여 지원

○ **Korey와 Canver의 한국문화**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문화 소개 웹툰(미정)

브라질

○ **제4회 세종학당 축제** [10.09. | 온라인 줌(ZOOM)]

-현지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으로 한글 퀴즈 대회와 한국 문화 특별 워크숍 실시

○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SESC 현대무용 비엔날레>**

[10.02.~10.10. | 비엔날레 공식누리집, 유튜브]

○ **핑크퐁 체험전시회** [10.01.~10.31. | 문화원]

- 아동을 대상으로 캐릭터 체험 전시회를 개최, 유아들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체험공간 조성, 베이비샤크 댄스게임, 핑크퐁 캐릭터 색칠공간,
각종 캐릭터 영상 등 마련

○ **한국문화 뉴스 온라인 스트리밍** | 문화원]

- K-Pop, 한식, 한국문화 주요 기념일 등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 **K-Pop 아카데미 문화원 커버댄스팀 강좌** [10.05.~10.07. | 문화원 다목적실]

- K-Pop 홍보 강화를 위해 문화원 커버댄스팀을 결성,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3곡의 K-Pop 커버 댄스를 집중 교육해 2022년부터 행사에 투입
- 총 22회 강의(10월~12월, 매주 2회)

○ **하반기 온라인 한글 캘리그래피 강좌** [10.01.~10.29. | 온라인 줌(ZOOM)]

- 한글 캘리그래피 강의 진행, 다양한 개성을 살린 작품 제작
- 매주 금, 2개 반 운영

○ **온라인 한식강좌(이론편)** [10.17.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현지의 식재료를 활용해 집에서 한국음식 요리와 조리법 소개, 이론 강좌와 연계해
요리실습 진행

○ **온라인 K-Dance 강좌** [10.15.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주재국 시민과 문화원의 누리소통망 구독자를 대상으로 강좌 진행

○ **한식 경연대회** [10.23. | 힐튼 호텔]

- 현지에서 한식 조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한국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소비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한식 요리 경합 대회 추진

○ **현지 호텔 연계 한식 홍보 사업** [10.18.~10.29. | 힐튼 호텔]

- 현지 요리 전문 인력 대상 한식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현지 주요 언론관계자,
요리 전문 칼럼니스트,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 한식 체험 워크숍, 시식회 등 개최

○ **온라인 태권도 강좌** [10.21.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현지 태권도 수련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서기, 막기, 지르기, 발차기, 호신술,
겨루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멕시코

- **한글날 기념 ‘한글 이름 선물’ 행사** [10.09. | 문화원 강당]
 - 한글날을 기념해 현지인들에게 순우리말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날 관련 영화 상영
 - 영화 <말모이> 상영
- **한글날 계기 온라인 영화 상영회** [10.09.~10.23.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영화 <말모이>, <천문> 온라인 상영
- **누에보레온 자치 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장 웨비나** [10.06. | 누리소통망]
 - 레나도(Renato) 교수를 초빙해 한국 관련 웨비나 진행(주제 미정)
- **K-Pop 보컬 강좌** [10.07., 10.14.]
 - 보컬 트레이너 김동재 강사의 강좌 4회 운영
- **온라인 한국어·문화 강좌** [10월 | 누리소통망]
 - 한식, 세종학당(한국어강좌), 바둑강좌 등
- **온라인 전시 <KOREARTE en México>** [10월 중 | 공식 누리집]
 - 제1전시실 : 청사·관저 작품 20점, 국립현대미술관
 - 제2전시실 : 문화원 작품, 국립무형유산원
 - 제3전시실 :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실 작품
- **아리랑 뮤직비디오 언론 발표회** [10.13. | 마리아 이사벨 셰라톤(예정)]
 - 제2회 아리랑 공쿨 우승팀 곡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 발표
-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멕시코 본선** [10.16. | 온라인 줌(ZOOM)]
 - 서울신문 주관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본선 개최
- **컨퍼런스 : 한국 영화의 날** [10.27. | 누리소통망]
 - 영화 전문 유튜브 채널인 ZOOM F7의 진행자들과 한국 영화 대담 진행
- **멕시코 K-Pop 스타즈** [10.24. | 누리소통망]
 - K-Pop 커버댄스, 노래 경연 대회 추진
- **GKS 유학생할 소개 영상 - 서울대편** [10.19. | 누리소통망]
 - 서울대의 GKS 유학생들의 생활, 이야기를 담은 영상 제작과 배포

일본-도쿄

○ 한글날 기념 작문콘테스트 <캘리그래피 수상작품전>

[10.7.~10.16. | 갤러리 미, 사랑방]

- 한글날을 맞이해 '한·일 교류 작문콘테스트 2021'과 '캘리그래피 공모전'의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수상작품 총 63작 전시
- 10.07.~10.16. <캘리그래피 수상작품전> 전시
- 10.18. 캘리그래피 대회 입상자 수상

○ K-Pop 댄스교실 : #4. 에스파편 [10.08. | 누리소통망]

- K-Pop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인기곡 에스파의 Next Level 2 댄스강좌 실시, 문화원 공식누리집과 온라인 등에 홍보

○ 온라인 한국요리교실 [10.06.~10.31. | 누리소통망]

- 김치를 활용해 김치피자 등 다양한 음식 조리법 소개, 요리 사진과 감상문 콘테스트 진행

○ 온라인 한국영화 기획상영회 - 액션 특집 [10.15., 10.21. | 누리소통망]

- 코로나19로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없는 주재국민들을 위해 집에서도 한국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상영
- #3. 10.15. 영화 <마스터> 상영
- #4. 10.21. 영화 <공조> 상영

○ 한국의 손기술 이음 [10.21. ~ 10.26. | 갤러리 미]

- 도교와 고베 소재 보자기공방'koe'의 수강생 작품 전시

○ 2021 한국 도서 특별전 [10.28.~10.30. | 갤러리 미]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해외도서전으로 우수도서 50권, 일상의 특별함의 주제에 맞춰 선별된 도서 30여권, 국제 최신 한국 도서 등의 서적 전시

일본-오사카

○ 한글날 기념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작문 콘테스트

[9.28.~10.9. | 문화원, 누리소통망]

-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로 자유롭게 시를 작문하는 콘테스트 진행,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작품 발표 및 우수작품 시상

○ 2021년도 <K컬처 아카데미> 공연 [10.04.~10.08. | 문화원 누리홀]

- 문화원 11개 문화강좌(한국민화, 가곡, 보자기·매듭, 전통무용, 가야금, 판소리, 민요, 장구, 태권도, 한지공예, K-Pop 커버댄스)의 운영
- 10.04. 민화, 10.05. 가야금, 10.06. 전통무용, 10.08.민요

○ 2021년도 7월 학기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운영

[10.05.~10.09. | 세종학당 강의실]

- 초·중·상급반 회화 강좌 등 총 21개 강좌 운영 174명 수강

○ 온라인 K-퍼포먼스 in 오사카 [10.16. | 유튜브]

-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와 비보잉, 국악, LED 등의 공연과 결합한 복합 공연으로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 향후 각 무대별 영상에 대해 별도로 순차적으로 공개

○ <한국 공예의 세계 2 - 규방공예> 전시 [10.14.~11.16. | 문화원 미리내 갤러리]

- 한·일 양국의 규방공예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일본에 규방공예의 아름다움 공개

○ 2021 한식요리 콘테스트 [10.23. | 오사카가스 허그뮤지엄 쿠킹스튜디오]

- 일반인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김치를 주제로 요리 콘테스트 개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대회는 영상으로 제작

○ SAC on SCREEN 년버벌 <정크, 클라운> 상영 [10.23. | 문화원 누리홀]

- 예술의 전당 협업사업 SAC on SCREEN 일환으로 년버벌 <정크, 클라운>은 마임리스트 고재경이 직접 연출한 2021년 신작으로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유쾌한 휴식을 선사하는 판토마임극

○ 온라인 단소 강좌(Zoom 실시간 레슨) [10.16.~10.30. | 누리소통망]

- 한 달간 문화원에서 보내준 영상을 보며 스스로 연습 후 전문 강사에게 1:1로 줌(Zoom) 실시간 강좌, 강사는 정우성(대금 이수자, 미국 거주), 박진경(대금 이수자, 한국 거주)
- 강좌 횟수 총 80회(1회 당 30분, 수강생 1명 당 1~4회 수강 가능)

중국-북경

- **한국영화 정기상영회** [10.08. | 문화원 지하 1층 공연장]
 - 가족 영화 특집 <담보> 상영
- **한글날 기념 행사** [10.08. | 문화원 지하 1층 공연장 등]
 - 한글날 주제 강연,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 **국경절 및 국군의 날 리셉션 문화공연** [10.14. | 주중한국대사관저]
 - 한·중 정부 주요인사 등 500명 초청, 경기민요와 재즈연주회 개최
- **한·중 미식교류회** [10.21. | 문화원 요리교실]
 - 한·중 언론인과 기업인 초청, 양국 미식 교류 행사 개최
- **라이브 전시투어** [10.22.~상시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전시를 온라인으로 상영
- **예술의전당 우수영상 상영회 개최** [10.27. | 문화원]
 - 예술의전당 제작 <디토 파라디소> 공연영상 상영회
- **북경대학생 대상 강연회** [10.30. | 문화원]
 - 북경대 학생 대상 김진곤 원장 강연회와 김치담그기 행사 개최

중국-홍콩

-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Fine Art Asia) 한국 도자관 부스 설립**
[10.07.~10.11. | 홍콩컨벤션센터]
 - 한국도자재단과 협력한 홍콩 파인아트아시아는 한국 주요 도자 공예 작가 10인 작품 전시와 판매 진행
- **<한국 10월문화제 e스포츠 페스티벌>** [10.8. | CGA 스타디움]
 - 배틀그라운드 게임대회 진행
- **한식명인강좌 K-Food Masterclass 2회** [10.10. | 타운가스 쿠킹 센터]
 - 한국 식품 체인 신세계(New World Mart)와 협력해 진행되는 한식(갈비, 김치) 명인강좌

○ **멀티미디어실 영화 상영회** [10.05.~10.15. | 문화원]

- 영화 <복면달호> 상영 (1일 2회, 화~토)

○ **한글 디자인 공모전 전시** [10.01.~10.09. | 문화원 6층 다목적홀]

- 한글 디자인 공모전 우수 작품 약 30개 전시

○ **한글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10.09. | 문화원 6층 다목적홀]

- 한글 디자인 공모전 최종 6명 우승자와 인기상 총 10명 발표, 기념사진 촬영

○ **세종학당 가을 정규학기 한국어 강좌** [10월 중 | 누리소통망]

- 현지인 수강생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 **온라인 전통매듭 공예 강좌(1회)** [10.08.~10.22. | 누리소통망]

- 한국 전통 매듭을 활용해 소품 만들기 시연 영상

- 10.08. 1회, 10.15. 2회, 10.22. 3회

○ **K-pop Zone SF9 행사** [10.04.~10.09. | 문화원 K-Pop Zone]

- 헌빈 홍콩 팬클럽이 주최하는 사전진시와 응원행사

- 10.04.~10.09. <SF9> 행사, 10.12.~10.16. 김선호 행사, 10.19.~10.21. 류준열 행사

○ **퀴즈대회 <K-Quiz Grand Prix>** [10.17. | WKCD A The Box]

- 총 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국문화 퀴즈 행사 진행

○ **한-홍 포슬린 페인팅 교류전 <50 colors of wishes>**

[10.15.~11.20. | 문화원 전시실]

- 한국 작가 19인, 홍콩 작가 31인의 그린 포슬린페인팅 작품 50점 전시

○ **한국전통공예(한복) 강좌** [10.16. | 문화원 강의실]

- 한복 공예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행사

○ **사물놀이 강좌** [10.16. | 문화원 7층 공간]

- 사물놀이 이해와 실습 강좌 운영

- 총 12주 동안 진행(매주 토요일)

○ **현지 노인을 위한 문화원 방문 프로그램** [10.15.~10.16. | 문화원]

- 평소에 한국문화를 접하기가 어려운 현지 노인 대상으로 한국문화, 한복 체험, 전시 투어, 전통공예 등 체험 행사 제공

○ **현지 유명 셰프 대상 한국 수산물 홍보 행사** [10.27. | 주홍콩한국문화원]

- 현지 유명 요리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국 수산물 홍보, 수산물 요리 시연 세미나

○ **한국광장 Korea Square 2021** [10.29.~10.31. | PMQ Courtyard & Marketplace]

- 홍콩 진출 한국기업 20여개 및 제 단체에서 참가하는 마켓플레이스형 한국 제품 및 식품 홍보행사 겸 윗놀이, 투호, 딱지치기, 매듭, 한복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한국문화 체험행사.

○ **달맞이** [10.15.~11.20. | 문화원 전시실]

- 김인식, 권중모, 이정원 및 조병희 작가의 <만월(滿月)>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공예와 영상 작품 전시

인도네시아

○ **고추장 홍보방송 : 요리합시다(Masak Yuk) 시리즈** [10.05.~10.20. | 누리소통망]

- Episode 1. 10.05. 출연진 소개
- Episode 2. 10.12. 순두부 찌개
- Episode 3. 10.20. 비빔밥
- Episode 4. 10.20. 닭튀김

○ **<제12회 한-인니 영화제>** [10.28.~10.31. | CGV]

- 주재국민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 진행
- 총 10편(인니영화 2편, 한국영화 8편)

○ **한-인도네시아 도서교류전** [10.8-10.10. | 롯데에비뉴]

- 한류 인플루언서들이 출연해 할랄인증을 취득한 고추장을 활용하여 한식을 만드는 예능형식의 홍보방송 시리즈 제작, 인플루언서의 개인 공식 누리소통망에 공개

○ **한글날 기념, 한글체험행사** [10.09. | 롯데에비뉴]

- 한-인니 도서교류전 병행, 한글이름짓기, 한글읽기 영상공모전 등 한글체험행사 진행

○ **<한복-바틱 패션쇼>** [10.09. | 롯데에비뉴]

- 주재국 주요인사를 초청해 한국드라마에서 접하는 조선시대 한복, 생활한복 및 한글과 산수화 특수 한복,바틱 콜라보 한복 및 한복 콜라보 바틱 패션쇼

○ **제1회 한국어학과 한국어 토론대회** [10.26.~10.29. | 누리소통망]

- 4개 대학 한국어학과 재학생이 2인 1조로 참가해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주제로 한국어로 토론대회 개최

○ **찾아가는 문화원과 별별스타 동부자바** [10.30. | 누리소통망]

- 동부자바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국문화소개와 한류콘텐츠 경연대회 진행

○ **10월 한류팬 초이스 어워드** [10.29. | 누리소통망]

- 10월 한달간 K-Pop과 드라마 인기투표 실시, 결과 방송

인도

○ **Belle du Jour** [10월 중 | 공식 누리집]

- 2021년 첫 번째 기획전시로서 재능있는 현지 작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도작가인 G.S.Budhwar의 작품 소개

○ **6.25 기념전시** [10월 중 | 공식 누리집]

- 한국전쟁 당시 인도에서 파견된 의료지원부대의 참전용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특별 전시
- 한국 인도간 역사적 동질감 형성, 미래를 향한 동반자 관계 강화 등 역사적 반증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마련

○ **2021 K-Pop 댄스 아카데미** [10.01.~10.21. | 문화원 유튜브]

- 인도 현지 K-Pop 팬들에게 전문적인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카데미 프로그램 총 12회 진행

○ **2021 전인도 K-Pop Contest(2차 온라인 지역예선)** [10.01.~10.31. | 문화원 유튜브]

- 인도 전역의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1 전인도 K-Pop Contest> 2차 온라인 지역 예선 진행

9.23	부바네스와르	10.9	콜카타	10.22	구와하티
9.25	첸나이	10.10	벵갈루루	10.23	파트나
9.29	하이데라바드	10.13	나그푸르	10.24	델리
10.1	미조람	10.15	이트나가르	10.27	력나우
10.3	군투르	10.16	보팔	10.29	임팔
10.6	코히마	10.17	푸네	10.31	뭄바이
10.8	데라둔	10.20	아흐메다바드		

○ **한국-인도 우정 온라인 퀴즈 경연대회** [10.01.~10.08. | 누리소통망]

- 문화원 공식 누리집에 한국 소개 코너와 해홍원 발간 「Facts About Korea」책자 바탕으로 전인도 중고등학생 대상 한-인도 친선 퀴즈 경연 대회
- 1차 웹 사이트 퀴즈
- 2차·3차 온라인(Zoom)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퀴즈 형식, 학교별, 도시별, 전체 국가 우승자 시상

○ **제4차 온라인 한국어 입문반 강좌** [10월 중 | 누리소통망]

- 한국어 자·모, 기초 문법 강의, 4개 반(주중2개, 주말2개, 총1,200명) 운영
- 영어(2개 반) 및 힌디어(2개 반)로 강의 / 온라인 실시간 강의 진행

○ **문화원 세종학당 2021년 2학기 강좌** [10월 중 | 누리소통망]

- 총 12개 정규반(주중5개, 주말7개), 수강생 271명

○ **인도학교 한국어 취미반 강좌** [10월 중 | 누리소통망]

- 한국어 초급 문법과 한국문화 강의, 6개 학교(9개 반 운영)

○ **제14회 전인도한국어말하기대회** [10.09.]

- 전인도한국어교육기관에서 대회 참가하며,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 대회 진행

○ **허왕후 뮤지컬 공연** [10.13.~10.14. | Kamani 공연장(델리)]

- 허왕후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인도 예술가들에 의한 창작 뮤지컬 초연, 인도 문화부 산하 국제문화교류위원회(ICCR)와 협업으로 공연장 임차와 홍보 진행

○ **2021 K-Pop 댄스 아카데미** [10.01.~10.21. | 문화원 유튜브]

- 인도 현지 K-Pop 팬들에게 전문적인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카데미 프로그램 총 12회 운영

베트남

○ **한국동화 읽어주기 '엄마의 이야기'운영** [10월 중 | 하노이 소재 어린이집]

- 하노이 내 4~5개 어린이집을 선정해 영유아 대상 한국동화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 **오늘도 나의 사랑, 한국어 영상 제작과 확산** [10월 중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현지 한국어 강사가 참여해 한국어 강의 릴레이 영상 제작, 문화원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산
- #4. 직장문화편

○ **한국문화원이 간다** [10월 중 | 문화원]

- 한국과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영상 제작, 11편 <한국편> 촬영과 편집
- 10.21. 10편 영상 송출

○ **나에게 한국어란 인터뷰 영상 제작과 확산** [10월 중 | 문화원]

-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국어를 통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현지인의 인터뷰 제작
- 총 12편 방영

○ **한국에서 온 영상 제작과 확산** [10월 중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현지인과 함께 베트남 가족 및 지인에서 전하고 싶은 한국 소식을 주제로 영상콘텐츠 총 12편 제작, 누리소통망에 송출
- 10.14. 한국 지하철 사용 방법 최종 영상 편집본 송출 예정

○ **2021 베트남 출간 한국 도서 독후감 공모전** [10.01.~10.31. | 문화원]

-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 베트남 내 대표적인 한국 독후감 공모전으로서의 발전 모색

○ **2021 K-pop Lovers Festival** [10월 중 | 문화원]

-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K-Pop 애호가 대상 커버 공모전, 온·오프라인 형식 추진

○ **한글강좌 2기 정규과정** [10월 중]

-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문화의 확산 실현

○ **아오자이 홍보 캠페인 운영** [10월 중 | 문화원]

- 한국인 유학생과 베트남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직접 제작하고 체험해보는 영상 콘텐츠 제작
- 10월, 촬영과 편집, 누리소통망에 송출

태국

- 제2회 대사배 온라인 말하기대회 [10.08. | 누리소통망]
 - 현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실력을 겨루고 한국어 학습의욕 고취
- 태권도 온라인 강좌 [10.01.~10.05. | 누리소통망]
- K-Pop 아카데미 댄스·보컬 강좌 [10.01.~10.31. | 누리소통망]
 -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댄스, 보컬 트레이너를 초빙해 1,000명을 대상으로 케이팝(K-Pop) 댄스, 보컬 강좌 진행
-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0월 | 누리소통망]
- 세종학당 및 한국문화강좌 [10월 | 누리소통망]
 - 세종학당 전 강좌, 가야금 중급반, 단소 중급반 운영

필리핀

- 한글 퀴즈대회 [10.09. | 누리소통망]
 - 문화원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한국어 낱말을 소개로 단어, 소리, 발음을 짚은 영상으로 제작
- 전통문화가 있는 목요일(Traditional Thursday) [10.07.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글날 기념 한글 특집으로 한글 창제 배경, 한글의 우수성, 재미난 우리말 속담과 유래 소개

카자흐스탄

- 한글날 체험행사 [10.17. | 한국문화원 대강의실, 공연전시장]
 - 한글날 맞이해 한글 캘리그래피 엽서, 무드등, 그림톡 등을 만들어보는 마스터클래스 진행

○ **한국문화제** [10.08.~10.09. | 노마드시티홀(누르술탄)]

-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재국 주요 2개 도시에서 전통공연과 K-Pop 공연 개최

○ **가을학기 온라인 한국어강좌** [10월 중 | 누리소통망]

- 카자흐스탄 내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 진행
- 정규(세종한국어1~4)과정, 총 10개 반 운영

○ **가을학기 온라인 한식강좌** [10월 중 | 누리소통망]

-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한식과 조리법 소개

○ **수목화 전시** [10.01.~10.17. |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 한국의 28명의 작가 수목화 작품전시 개최

UAE

○ **제2회 K-Pop Masked Singer Contest** [10.10.~10.27. | 공식 누리집]

- 가면 등을 사용해 얼굴을 가린 채 K-Pop 콘테스트 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 **정기영화상영** [10.04. | 마나랏 알 사디야트]

- 우수 한국영화 1회 상영

○ **한글날 기념 OX 퀴즈 대회** [10.04.~10.09. | 누리소통망]

- 한글날 기념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퀴즈 대회

○ **Seoul Travel Market** [10.14.~10.16. | 더 포인테 두바이]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커뮤니티 지원 사업 선정, 한류를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마련

○ **2021 아시아문화포럼 ‘K컬처와 아시아의 청년’** [10.13. | 누리소통망]

- 청년아시아문화연구단 선정,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에 대한 갈등 극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표

○ **국경일 행사** [10.20. | 누리소통망]

- <2021 코리아페스티벌> 공식 개최 행사로 양국의 국가연주, 대사님과 주요인사 축하 메시지 등 온라인 송출

○ **제 17회 Emirates International Peace Music Festival**

[10.25. | 문화원 누리소통망]

- UAE 청소년 관현악단 소속과 졸업 단원 포함 다국적 학생 연주단의 <코리아페스티벌> 기념 공연

○ **제 9회 UAE 한국어 말하기 대회** [10.27. | 누리소통망]

- 코리아 페스티벌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 의식주를 주제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정기기획전시 <한양 여인의 향취>**

○ **2021 문화강좌(한식) 운영 - 팔빙수**

○ **2021 세종학당 특별 4학기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 **2021 문화강좌 운영 - 규방공예**

○ **2021 그림공모전 Draw your Kore**

이란

○ **한국 소개 온라인 생방송** [10.14. | 누리소통망]

- K-Pop, 한국 관광, 한국 유학, 한국 음식, 한복 등 주제로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

○ **한국의 국경일 행사** [10.27. |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 국경일 계기 축하행사 개최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 증진과 주재국내 한류 확산 목적, 양국 전통 공연과 전시회 개최

○ **한류 팬클럽 세미나 개최** [10.28. | 온라인 줌(Zoom)]

- 이란 주요 도시(테헤란, 카라지, 이스파한, 시라즈, 마쉬하드, 부셰흐르, 하메단 등)에 거주하는 한류 팬클럽 리더를 대상으로 한류 소개 세미나 개최

호주

- 수교 기념 '위글스'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특별 영상 3편 [10.07. | 누리소통망]
 - 한·호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호주의 어린이 밴드 '위글스'와 함께 한국어 가사로 노래하고 춤추며,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3개 영상 콘텐츠 제작
- 한국문학주간 행사(연기) [10.07.~10.21. | Berkelouw Books Hornsby]
 - 김애란 작가 <두근두근 내 인생> 북클럽, 참가자 작가 사인도서제공 이벤트 진행
- 2021 호주한국영화제(캔버라) [10.14.~10.23. | 팔라스 시네마]
 - 10.14.~10.18. 캔버라 개최, 최신 우수 한국영화 8편 유료 상영
 - 10.14.~10.23. 시드니 개최, 최신 우수 한국영화 22편 유료 상영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 유관기관(KOTRA) 연계사업 [10.04.~10.08. | Work and Connect Business Center]
 - K-Bueaty 기업 '푸라하'와 연계해 문화원 한글학생 대상 비누 만들기, 손 소독제 만들기 와 같은 감염병 예방교육(CSR사업)
- 케이팝(K-Pop) 아카데미 수료식 [10.07. | 웨라톤호텔]
 - 현지에서 K-Pop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전문 K-Pop 댄서 수강생들이 그동안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 마련
- 제1회 태권도 창작품새 대회 [10.15. | 문화원]
 - 온라인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 3팀을 선발, 문화원에서 결선 진행과 시상식 개최
- 한국문화의 날 영화상영 [10.20. | 문화원 스튜디오]
 - 라고스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영화제>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파파로티>를 아부자시민들을 위해 한국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원에서 상영
- 2021 재외공관 한아프리카 청소년 교류사업 [10월 중 | 아부자, 라고스]
 - 국제비영리단체 students for the Advance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SAGE)에서 주관하는 SAGE Global Competition 청소년 퀴즈대회에서 1, 2등 팀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탐방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Vol.20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1년 10월호

발행처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1년 10월 12일

발행인

박정렬

기획 및 편집 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이유림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임영아 | 주한필리핀문화원장

이은정 |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 교수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ISSN 2713-9387

